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부쉬의 대북강경정책



6.15주간 편집부

부시의 대북강경정책

6.15주간 편집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주체 90(2001)년 7월24일



이타르－타스통신사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제기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러 두 나라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러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은 조러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대통령이 러시아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은 조러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과의 상봉에서 우리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입장으로 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호상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러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는 조러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조러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 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 속에서는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지금 우리 두 나라사이에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서로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 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러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에 훌륭히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지도자들사이의 대화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사이,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제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며 친선적인 러시아인민들과 상봉하면 나에게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당면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관계를 두터이 하고 조러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문제가 미국이 우리를 걸고 드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미사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맺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통하여 전략적 안정을 유지할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며≫그로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미사일강령은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 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사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 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자주정치, 우리의 자주적 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 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 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입장과 태도로 나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그만 둔다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나에게는 하여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양식이며 생활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러시아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내며 강력한 러시아와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러시아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책동을 성토함

새 세기에 들어선 지금 한반도에는 시시각각으로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어제는 대조선고립압살을 위한 핵사찰소동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던 미국이 오늘은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으로 우리 민중과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으려 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담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배격하며 단죄하는 이 성토문을 발표한다.

우리 민중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으로 50여년동안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어 오면서 전쟁위험을 강요당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한 희생물로 되어 왔다.

지구촌에서 동서대결의 냉전체제가 붕괴된 속에 지난해 분단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마련되고 북미공동커뮤니케가 발표되자 우리 민중은 이 땅에도 평화와 안정이 깃들고 미국의 치욕스러운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의 숙원인 자주적 조국통일도 이룩되리라 가슴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와 인류가 그처럼 기대했던 새 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이 미국 부시정권의 출현으로 시시각각 파괴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전역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의 길은 차단되고 우리 민중은 또다시 핵참변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걸며 남북관계를 대결과 적대관계에로 되돌려 세워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북침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기에도 그들의 처지가 불리할 때마다 평화와 긴장완화를 떠들며 큰 나라들과는 대결을 피하고 반미자주적 입장이 강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적 힘으로 누르는 잔인하고 횡포한 수법을 써왔다.

새 세기에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일극체제를 만들려는 부시행정부는 침략적인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의 구실을 바로 이북의 미사일위협설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이북을 걸고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전역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목적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장애로 되는 이북을 핵선제타격하여 우리 민족을 공멸시키고 핵미사일 독점권을 차지해 대국들을 견제, 제압하고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며 미군산복합체들에 막대한 폭리를 가져다 주자는 데 그 흉악한 저의가 있다.

미국은 이러한 침략적 목적실현을 위해 이북에 있지도 않는 핵문제, 미사일문제뿐 아니라 상용무기문제까지 걸고들면서 이북에 자유의 적, 제1의 주적, 불량배국가 라는 당치 않은 딱지를 붙이고 고립, 압살해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대통령취임연설이라는 데서 대조선압살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시는 지난 5월 1일에는 미사일방어체제만은 어떻게 하나 구축할 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횡포무도한 침략적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다.

미국무장관 코웰도 나토본부에서 열린 특별외무상회의에서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수립을 떠들었으며 럼스펠드국방장관도 미사일방어체제전개에 대해 극구 찬양하였다.

미해군이 2006년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고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부보좌관 스티븐 헤들리는 휴전선 근처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미국호전광들의 연발되는 망언 속에 1천억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은 이미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르러 지난 1월말 탄도미사일요격 레이저무기시험이, 3월 21일에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위한 미사일시험이 진행되었다.

오늘 미국이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우리 민중은 물론 온 겨레와 전 인류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결사 반대, 배격하고 있다.

미국은 마치 이북 미사일이 당장 미국본토를 타격이나 할 듯이 위협을 운운하며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정당화, 합리화하려 해보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강도적 궤변이며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이미 가증스러운 핵탄두만도 8, 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 최대의 미사일보유국으로 되고 있다.

지구촌에 평화와 안정만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새 세기에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한 세계 그 어느 나라가 미국을 공격한단 말인가.

오직 군사적 힘에 의한 미국식 강권질서를 수립하여 이북을 압살하고 세계를 미국의 이익에 절대 복종시키려는 미국은 이북을 제압하기 위해 한반도야 초토화되건 말건, 한국민이야 전멸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강도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 국민은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위험을 안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세계는 치열해지는 군비경쟁 속에 신냉전의 새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로 전율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우리 민족과 인류를 핵참화 속에 떠밀어 넣으면서도 그 무슨 보호에 대해 광고하고 있다.

묻노니 미국의 침략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이 어떻게 한국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단 말인가.

역사적으로 한미관계란 미국의 무제한한 야망과 국익에 따라 한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온 식민지예속의 종속관계이지 동맹자관계가 아니었다.

보라! 반세기 이상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하나의 강토를 남북으로 두 동강 낸 미국의 포악성과 전횡은 극치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140여만의 해외침략군을 축감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그처럼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요구를 묵살하고 4만여명의 주한미군영구주둔을 공언하며 그 모든 부담을 우리 민중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은 이북의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그처럼 집요하게 걸고들면서도 한국에는 미사일의 생산과 반입, 배비를 승인, 묵인하고 각방으로 지원하며 북침전쟁에로 내몰고 있다.

이미 1천여개의 핵무기를 산적해 놓은 이 땅에 오늘 최신형 스탠다드 미사일발사대와 같은 첨단살인장비들을 구입케 하여 한국을 저들의 신냉전주의적 대결정책의 산물인 미사일방어체제에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미국은 호전광들을 서울에 연속 급파하며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

한반도를 세계핵전쟁의 발화점으로 삼으려는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의 첫 시험장을 우리 나라의 동해로 설정하고 최신형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 두척을 배치하려고 악랄하게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이북을 겨냥한 미국의 무모한 미사일방어체제의 전개가 이미 추진단계를 벗어나 실전배비단계에 이르렀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모험적이고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어제는 6.25전쟁의 참변을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오늘은 핵참화의 위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우리 국민의 숨통을 누르고 있다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은 우리 국민의 멸살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민중이 어찌 미국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 배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땅은 미국의 세계제패 실현을 위한 전장도 아니고 미군산복합체의 황금주머니를 불궈 주는 도박장도 아니다.

미국이 구축하려는 미사일방어체제는 자기를 지키고 그 누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패권주의적 야망으로부터 출발한 세계제패용이며 한반도를 핵불도가니 속에 몰아 넣으려는 침략전쟁용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침략과 예속, 전쟁과 테러를 본성으로 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전무후무한 불량배국가, 망나니국가, 테러국가이다.

새 세기의 가장 파렴치하고 흉악한 침략과 전쟁의 원흉, 세계평화의 교란자 미국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륜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 땅에서 살인무기와 주한미군을 지체없이 끌어 내가라!

현 당국은 미국의 침략적 미사일방어체제에 공조하면 비참한 파멸과 죽음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라!

전 국민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결사 반대, 배격하는 반미항전으로 가증스러운 미국의 식민통치를 끝장내고 평화롭고 통일된 부강조국을 하루빨리 안아 오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5월 19일
서울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성토함

식민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강매행위가 날로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 위협을 떠들며 한국이 저들의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을 강박하며 우리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 고혈을 짜내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이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울분을 안고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단죄하여 이 성토문을 발표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에 의해 반세기이상이나 민족분단의 고통을 겪어왔을 뿐아니라 동서대결의 일선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강요당하며 미국무기장사꾼들의 치부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과 북미공동커뮤니케가 발표되자 이 땅에도 긴장완화와 평화가 정착되고 미국무기장사꾼들의 횡포가 가셔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국민에게는 더욱 전율할 악몽같은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새로 집권한 미국부시정권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판로난, 경영난에 직면한 미군산복합체의 숨구멍을 열어주고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이북을 걸고 이땅에 신냉전의 기류를 몰아왔다.

그들은 이북을 자유의 적,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북의 군사적 위협설을 유포시키는 한편 한국에 미국무기구매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한국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10조원에 달하는 외국무기도입의 상대를 독점해 돈벌이를 톡톡히 해보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제무기가 한국을 보호하고 서울을 지켜주기 위한 위엄있는 무기들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그런데 그 위엄있는 무기들이란 과연 어떤 것들인가.

미국이 구매를 강박하는 에프15전투기 는 지난 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써 한세대 뒤떨어진 것이고 아파치헬기 는 한반도의 산악지형에 맞지 않아 성능시비에 걸린 것이며 패트리어트미사일 은 이미 폐기품으로 낙인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등치고 간빼먹는 날강도 행위가 아닌가.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는 제 배를 채우기 위한 또하나의 식민지약탈행위이며 한반도에서 정세를 격화시켜 전쟁불집을 터뜨린 다음 더많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비열한 전쟁도발행위이다.

미제는 한반도야 초도화되건 말건 우리 국민이야 죽건 말건 더많은 무기를 팔아 돈만벌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로말미암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국무기장사꾼들의 돈주머니에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격화에 불을 질러놓고 무기를 팔아 배를 불릴 때, 이땅의 우리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화약고 위에서 주한미군유지비에 뜯기우고 미국제 무기구매비에 뜯기워야 할 처지에 있다.

이 통탄할 사태앞에서 지금 정계, 언론계 등 사회각계에서는 미국무기중독증에 걸린 식민지 , 한국은 미국무기상인들의 천국 이라는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은 무기강매를 통해 우리 국민의 피땀을 빨아낼뿐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무기시장, 무기식민지로 만들고 국군을 저들의 용병으로, 대포밥으로 써먹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떠드는 한미간의 우방관계의 실상이다.

사실상 한미관계는 미국의 무제한한 침략야망과 그에 따른 강도적 전횡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기만 하는 약육강식의 관계이다. 침략과 약탈을 생리로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한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무참히 희생시키고 있다.

미국부시정권이 한국에 강요하는 무기구매압력책동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기 위한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7천만 온겨레는 가슴부푼 희망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의지에 넘쳐있고 온 세계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을 지지하고 있는때에 이에 역행해 나서는 미국의 파렴치한 무기강매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악마이고 숙적이다.

죽음의 장사로 일확천금을 노린 미국때문에 어제는 6.25전쟁의 참변을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으로 자주통일의 지평이 열린 오늘 또다시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격할 일인가.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미국무기장사꾼들의 치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놈들의 죽음의 장사를 위한 전쟁희생물로 될 수 없다.

이리가 물었던 비계덩어리를 놓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양키승냥이들은 한국이라는 식민지를 스스로 내놓지 않는다.

오직 우리 민족, 온 국민의 강경한 반미투쟁으로써만 미국의 지배와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땅에 전쟁이 없고 분단이 없는 민족자주통일의 새날도 앞당길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각계각층민중은 미제의 범죄적인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자!

미군기지철폐,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더높이 지펴올리고 거세찬 반미항전의 열풍을 일으켜 나가자!

우리 국민은 미국무기장사꾼들의 희생물이 아니며 이땅은 미국의 무기시장이 아니다.

미국은 무기강매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이 땅에서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7월 26일
서울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총분기하자

오늘 우리는 해내외에서 조국통일열기와 주한미군철수의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 56년을 맞고 있다.

미제침략군이 비법적으로 한국을 강점한 1945년 9월8일은 우리 민중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제2의 국치일≫이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재난은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이 낳은 직접적 결과물이다.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 56년은 ≪해방≫이 아니라 예속, 민주가 아니라 파쇼, 통일이 아니라 분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먹구름만을 몰아온 범죄의 56년이다.

우리 민중은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반세기이상이나 국토분단의 비극 속에 자주권과 민주주의, 생존의 모든 권리를 미제에게 무참히 빼앗겼으며 민족멸살의 핵전쟁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 전대미문의 통탄할 사태 앞에서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물론 전인류가 구천에 사무치는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56년간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서 감행해온 천인공노할 범죄적 만행을 전국민의 쌓이고 맺힌 증오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러시아연방공식방문에서 채택발표하신 모스크바선언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견결한 반미자주적 입장을 다시금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시었다.

우리 민족의 사활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이 중대한 선언은 지금 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과 절대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투쟁에 나선 우리 국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물론 전인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사이에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오늘의 이같은 민심과 시대의 흐름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그 어떤 구실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부시정권은 우리 겨레의 염원과 인류의 지향에 정면 도전해 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 땅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열풍 앞에서 당혹해난 부시정권은 이른바 ≪신국방전략≫으로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고 있다.

20세기 동서냉전의 장본인이었던 미국이 세계패권전략을 위해 한반도에 몰아오고 있는 21세기 신냉전부활의 광풍을 보라!

이북을 ≪제1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한 미국은 있지도 않는 핵무기와 상용무기감축까지 걸고들면서 이북압살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떠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초기상황을 가상한 북침전쟁연습이 최대규모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속에 특수작전용전쟁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반입되고 이지스함의 동해배치와 핵선제타격을 명문화한 침략전쟁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다.

침략으로 길들여지고 침략으로 생존해온 미국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험한 전쟁상황에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화점은 주한미군이다.

이 땅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전력이 공격형의 북침무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인된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의 임무와 사명은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실현의 제1선에서 제2의 북침전쟁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미제가 ≪전쟁억제력≫, ≪평화유지군≫,≪유사시 대응군사력≫의 외피를 씌워 현대적 전력을 이 땅에 계속 증강하면서 주한미군의 작전력과 전투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서막이다.

미제침략군은 북침전쟁준비단계로부터 이제는 위험한 실천단계에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우리 민중은 미국이 강요하는 온갖 불행과 전쟁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으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할 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미제침략군철수를 반미자주화투쟁의 기본목표로, 최우선적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침략군이 강점한 한국과 같은 식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민중의 치욕이며 용납될 수 없는 시대의 오점이다.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이것이 우리 민중과 온 겨레, 세계양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외침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화지향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침략정책을 즉각 포기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식민지지배와 간섭의 손을 떼야 한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한 우리 민중의 그 모든 불행과 고통, 재난은 절대로 가셔질 수 없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정도 바랄 수 없다.

반미투쟁이 없이는 민족의 자주도, 조국의 통일도, 사회의 민주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민족민주운동의 피의 교훈이며 총결산이다.

현실은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의 존재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투쟁에로 전국민을 부르고 있다.

각계각층 민중은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미제침략군 철수투쟁에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재산의 차이를 초월하여 결연히 일떠서야 한다.

전국민은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군인 미제침략군철수투쟁에 자기 생존, 자기 운명이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총분기하자!

반세기이상 이 땅을 타고앉아 통일을 한사코 반대해 오면서 오늘은 6.15공동선언실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며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는 분열의 원흉, 통일의 원수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자!

치떨리는 살인만행으로 이 땅을 피로 물들이고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살해해온 극악한 살인마집단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냉전의 온상, 전쟁의 화근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추방하자!

이 땅을 유독성물질로, 사람못살 황무지로 전변시킨 미제침략군을 내쫓자!

우리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는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자!

전국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미군철수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각계민중은 전국도처에서 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자주의식을 확산시켜 숭미공미사상을 불식시키며 반미자주화운동의 대중화와 조직적 공동연대를 실현하자!

반미로 자각하고 자주로 뭉쳐싸우는 우리 민족의 정의로운 미제침략군철수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모두다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에 총분기하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0(2001)년 9월8일
서울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1월 9~10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부시 차기정권이 북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먼저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보도된 데 따르면 부시 차기정권이 46억 달러를 들여 북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해서 석탄화력발전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신문은 부시 차기정권이 경수로 건설조약을 바꾸는 방안은 북미합의문이 사실상 종결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외신들이 이런 보도들을 날리는 것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일인데요. 앞으로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만약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기본합의서를 깨는 방향으로 나가면요, 우리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죠. 북미기본합의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구요, 또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상품거래명세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핵무기를 근원적으로 **하고 ** 보장을 위한 북미사이에 정치 ** 이정표입니다. 이북은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수십년동안 건설한 **핵** 공업을 중단시켰어요. 이것은 이북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업을 희생시키는 비장한 결단을 내린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마땅히 이에 상응하게 경수로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매년 50만톤 씩 주기로 한 원료를 공급해야합니다.

사회자 : 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지금까지 북미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 어느 조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문 자체를 깨버리려고 책동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윤정원 : 그러게 말이에요. 미국 측은 북미기본합의문에서 2003년까지 총 200만 키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를 북에 제공하며 북의 흑연건설로와 관련시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매해 50만톤의 원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조약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요. 경수로건설착공식은 계속 미뤄오다가 97년 8월 13일에야 착공하고, 그 후 본체공사는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수로 건설전망이 얼마나 막연했으면 러시아의 **은 **언제 **겠는가 하는 것을 **으며 세계의 진보민중은 *** 민족 ** 경수로 공사는 **되리라는 건 짐작 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부시 차기정권이 석탄화력발전소로 바꾸는 방안이니 뭐니 하면서 경수로 조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회자 : 우리민중과 국제사회는요, 북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리려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책동을 보고 미국이 **라며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냉전을 **시키고 북미기본합의문 이행에 성실한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보수**의 표리부동한 태도 때문에 모처럼 마련된 북미기본합의문은 ***고 있어요. 이렇게 된거는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죠.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처음부터 북미기본합의문의 채택을 달가와 하지 않았어요. 공공연히 북미기본합의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느니 클린턴 정권이 너무 양보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비질을 하고 방해책동을 벌려놨다는건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의 이런 **가 부시 차기정부가 들어서면서 표면화되고 있는데 세간에는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부시 차기정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북미기본합의문이 깨어져도 결코 겁나지 않다. 이것이 이북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이북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윤정원 : 네 아시다시피 이북은 자기 **도 ** 나갑니다. 이북은 자기의 존엄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이북의 입장은 명백한 거예요. 이북은 미국이 북미기본합의문을 **으로 여겨진다면 제 할 바대로 한다는 거죠. 이북은 북미기본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어 경수로 건설이 계획된 날짜에 끝내기를 바라지만 설사 그것이 깨어진다고 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달갑지 않으면 그만 두라는 거죠. 이 얼마나 배짱있는 태도입니까? 미국이 북미기본합의문을 깨면 이북도 그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회자 : 네, 미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미기본합의문을 깬다면요 돌이킬 수 없는 악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물론 그렇죠. 북미기본합의문이 완전히 백지화되는가 아니면 빛을 보게 되는가 하는 건 전적으로 부시 차기정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 **분위기에 걸맞게 한반도에서의 대결국면을 해소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북미기본합의문의 정신에 따른 경수로 건설을 계획된 날짜에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파기하려 한다면 미국은 내외여론의 규탄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미국 ***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그 분위기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사회자 : 전 민중은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겠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일구는데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정원 : 네 근본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 보면은요 부시 차기정권은 심지어 민주당정권이 이룩해 놓은 것까지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길로 나간다면 미국도 좋을게 없어요.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미국은요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길로 나갈게 아니라 개선하는 데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부시 차기정권이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요 매사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 다시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3월 15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가 새 세기에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의 분열이 종식되며,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북을 고립압살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먼저 미국이 북침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일 : 네, 그러죠. 미국은 최근 한반도주변에서 침략적인 전쟁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방송이 전한데 의하면요, 괌도에 수십기의 공중탑재순항미사일을 이동 배치했구요, 공격용 잠수함들도 배치했어요.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해군이 나가사키현의 사세보기지에 대비되어 있는 호위함을 지휘하는 호위**대 사령부를 신설한 겁니다. 이 사령부는 주일미군 뿐아니라 일본해상자위대와의 협동작전도 지휘하는 임무를 하고 있어요. 사세보에 호위군*대 사령부를 신설한 것은 한반도유사시에 대비한 거라고 봐요. 한편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북에 대한 정탐활동도 더욱 악랄하게 벌이고 있고, 신형무기들을 계속 휴전선부근에 배치하고 있어요. 또한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죠.

사회자 : 네, 지난 1월 새로 출범한 미행정부는 말이죠, 북에 대한 침략야망을 기어코 실현해 보려는 목적으로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를 적극 추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그렇습니다. 그들은 북에 의한 지역안보의 불안정을 운운하면서 미일 군사동맹이 지역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 한반도유사시 북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전시 미일공동작전을 원활히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요. 일본방위청은 다음세대 초계기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초계기에 탑재하는 정보처리체계나 레이더체계 등을 미국과의 기술협력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공동개발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해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죠. 미일은 또한 일본주변유사시 공동군사작전들을 벌여나가기 위한 4개의 공동위원회 및 그룹***구성안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새 미행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를 대북압살전략 실현의 중요 고리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봐요.

사회자 : 네, 미국은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적 **을 강화할 때마다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는데요.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수립도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 추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들의 전쟁준비를 합리화해보려는 궤변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이북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봐요. 위협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조성되고 있잖아요. 위협의 가해자는 미국이고 그 피해자는 이북이죠.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많은 미사일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기를 배치해놓고 북에 대한 위협과 ***을 노리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미국이 있지도 않은 이북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며 거꾸로 된 강도적 놀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미국지배층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8개 반미단체 회원 1백여명이 3일 주한미대사관 옆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참석자들은 미국이 자기의 세계패권과 무기산업의 이윤을 위해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명분으로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는 걸 정면 비판한 것이죠.

사회자 : 우리 민중은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현한 후 미국의 대북정책 태도를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부시행정부는 북에 도전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또 다시 긴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오 일 : 그래요. 미국은 있지도 않은 이북의 위협과 인권문제를 터무니없이 걸고드는가 하면 *****고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매도하면서 도발적이고 무분별한 반북행위에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은 부시에게 북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북의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 합의서를 파기하라고 까지 떠들어댔어요. 이것은 북미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는데로 나가려는 미국이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사회자 : 네, 부시행정부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자세로 나온다면 미국도 편안치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네, 그래요. 미국은 이북을 바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북은 자기의 자존심과 존엄을 건드리며 북에 도전해 나서는데 대해선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도발에는 강경대응으로 대답하는 것이 이북의 혁명적 원칙이고 행동방식입니다. 미국이 북에 대해 강경으로 나오는 이상 이북도 그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북은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고 뱃심이 든든하다고 봐요. 어떤 강적도 단매에 처 물리칠 수 있는 무적불패의 강군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국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북에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이 계시고 그분의 주위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똘똘 뭉쳐있어요. 이것은 이북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집권**들은 이북의 의지와 배짱, 뱃심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북과 대결하는 길로 기어이 나온다면 이북의 위력 앞에 끝말을 보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모든 일에 심사숙고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자 : 네, 각계애국민중은 미국이 무분별한 반북소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 일 : 네, 옳은 말씀입니다.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경하게 나오리라는 걸 예측치 못한 바는 아니지만 부시행정부가 나오는 걸 보면 지나칠 정도로 강경해요. 미국의 이러한 강경자세 때문에 결국은 조미관계 개선에 틈이 생기고 한반도의 정세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특히 우려하는 걸 보면 미국의 강경대북자세가 6.15공동선언발표 후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건데요 ****니다. 그런 만큼 각계애국민중은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한반도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반전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각계민중은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책동은 한반도 정세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심하고 도처에서 반미, 반전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가미사일방어체제수립과 그 저의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3월 16~17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계속 개발, 대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국가미사일방어체제 수립과 그 저의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클린턴정부에 비해볼 때 부시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문제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김현규 : 네,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이전 대통령 클린턴이 자기에게 넘겨준 이 까다로운 문제를 지체 없이 걷어안고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계속 개발, 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시가 이렇게 선탕을 때자 부대통령은 러시아가 1972년 미국과 소련사이에 체결된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은 이 조약을 더는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조속히 개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계획의 시행을 저해하는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수정되지 않는 다면 미국은 이 조약에서 서슴지 않고 탈퇴할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회자 : 어떻습니까? 부시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 포괄범위도 클린턴정부보다 더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가미사일방어체제는 주로 미국의 전체 지역을 그 무슨 적대국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폭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정부는 미국본토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정부는 적측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고 미사일의 파편과 미사일에 장착된 화확, 또는 생물무기 탄두가 타격대상국 경내가 아니라 발사국 경내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해상기지에서의 요격과 우주에서의 요격에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사실 미국에 미사일위협을 가할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시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 대비하려고 책동하고 있는데 그 본심이 무어냐 하는 겁니다.

김현규 : 네, 그것은 미국이 세계전략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가 자국의 전체지역을 얼마 안되는 이른바 테러지원국들의 미사일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6백억달러를 소모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이 미사일방어체제는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핵대국들로 하여금 핵전략위협 능력을 깡그리 상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제라는 두 가지 위협을 통해 어떤 미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그 어떤 나라의 도전도 방지하고 세계에서 저들의 유일한 패권적 지위를 수호하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속셈입니다.

사회자 : 어떻습니까?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개발에서 한몫 보기 위해서 열이 나서 그것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국가미사일방어체제계획을 한 그루의 황금나무로 보고 있는 군수업체들은 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저저마다 유세를 부리면서 국회와 정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가미사일방어체제에 관한 법안이 미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군수공업을 비롯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보잉회사는 미사일을 만들고, 옵티드 마틴회사는 보조추진기를 만들며 티알엘회사는 위성통신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개의 큰 군수기업들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한부분씩 청부받아 가지고 이미 이 체제의 연구, 제작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이윤을 보았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미국이 받고 있는 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떠드는 것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국방비를 늘리도록 하고 그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한편 미군부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책작성과 결정채택에서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화당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완고한 지지자가 아닙니까. 공화당의 이러한 작태는 당파적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평이 아닙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역대적으로 군수업체들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레이건정부의 별세기전쟁 계획으로부터 조지부시정부의 제한된 타격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방어체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들이 공화당의 독판치기로 작성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클린턴정부가 내놓은 국가미사일계획에서 역시 공화당의 압력 밑에 급속히 추진된 겁니다. 공화당은 1997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계획의 실시를 다그칠데 관한 의안을 상원에 제출했고 부시는 선거경쟁기간에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연구 및 대비를 다그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군수업체들과 군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부시는 집권후 군부배경이 있는 이전 정부관리들을 많이 임명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계획 실현에서의 미공화당의 정책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죠.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건 이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들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대비는 세계 군비경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게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군비경쟁은 미국과 소련사이에 국한되어 있던 냉전시기와는 달리 수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세계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일단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게 될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제멋대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문제를 통제하려 들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미사일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군비경쟁이 격화되면 세계평화는 결정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사회자 : 그렇죠. 그러나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가 반드시 미국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무엇이나 다 뚫을 수 있는 창도 없지만 그 무엇이나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기발전사는 바로 창과 방패사이에 상생과 상극의 역사가 아닙니까? 국가미사일방어체제는 이 법칙을 변화시킬 수도, 없앨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부시행정부 그 실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4월 20일~21일





박진수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박진수 :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다 되어오고 있습니다. 클린턴행정부의 뒤를 이은 부시정부는 과연 어떻게 된건지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그 실태를 통해 알아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 나온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내외에선 부시행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봅니다. 그럼 기본문제에 앞서서 정부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 일 : 네, 그렇게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정부가 어떤 성격을 띈 정부인가 하는 거는요,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의 내력을 보면 그것이 보수냐 온건이냐 하는 걸 가름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새로 출범한 부시정부를 보면 그것이 어떤 성향을 띈 정부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내외에서 부시정부를 매파정부, 냉전정부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매우 적중한 소견이라고 봐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선 정부 구성상태를 보죠. 아시다시피 새로 취임한 부시는 전대통령 조지 부시의 장남이죠. 전대통령 부시는 *** 걸프전쟁을 도발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전쟁범인이죠.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요, 현부시행정부의 성격이 다를바 없는 *****. ****매파로 악명을 떨친자들을 주요 각료직에 등용했는데요. 체니부통령은 전부시행정부시기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중동나라들에 대한 힘의 지배를 벌인 자입니다.
박진수 : 네, 국가안보담당보좌관으로 있는 라이스도 전부시행정부의 공모한 매파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예, 그렇죠. 라이스가 어떤 여자인가 하는건요, 지난 시기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을 붕괴시키는 ***으로 실적을 올렸죠. 미국무장관 파월 역시 전부시행정부 시기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내면서 월남전쟁에도 참가했고 91년 걸프전쟁을 지휘한 인물이고,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전부시행정부시기 이른바 중동평화특사라는 간판 아래 중동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교란, 파괴하는데 앞장선 인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 부시행정부에 들어앉은 거물급 모두가 강경매파, 보수우익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박진수 : 하기에 부시는 한 연설에서 체니, 라이스, 파월, 럼스펠드 등 이 4명으로 강력한 국가안보팀을 결성했다고 내놓고 얘기한바 있는데요, 이건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 일 :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아시아 한나라 출판물은 현미행정부의 집권자들을 매파, 냉전의 능수들이라고 평했는데요. 이건 부시가 공화당의 매파중의 매파들로 ***를 꾸렸다는 것***있어요.
박진수 : 네 그렇습니다. 콩 심은 밭에 콩 나고, 팥 심은 밭에 팥 난다고 부시행정부의 ***을 이루는 인물들을 매파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군사적 힘으로 남의 나라를 위협하고, 전쟁의 방법으로 먹어보려는 야심밖에 나올게 없다고 봅니다. 그건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표명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죠.
오 일 : 그래요. **에 떠벌린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지난 2월 12일 부시는 연설에서 무력증강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평화는 무력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구요 미국의 주요 관심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는데 있다. 이렇게 폭언적으로 전쟁논리를 퍼트렸는데요 여기에 체니부대통령이라는 자는 새 **는 레이건 시대와 같은 자랑스러운 시대를 펼칠거라고 떠벌였죠.
박진수 : 네, 전미국대통령이였던 레이건의 별칭이 매파안의 매파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체니의 떠벌임은 새 정부도 역시 레이건 정부처럼 매파안의 매파로써의 정부가 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인명된 라이스, 그 역시 매파적 기질로 악명을 떨친 여자가 아닙니까.
오 일 : 네 그렇죠. 원래 라이스 매파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 그녀는 부시행정부의 안보담당회의에서 **** 갈망하고 **** 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화는 힘과 함께 보장되며 **가 곧 군대이고 군대는 ***이다. 이렇게 떠벌였는데요. 매파기질을 가진 매파의 수괴라고도 할수있죠. 럼스펠드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수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밀겠다고 하고 있고, 파월은 이라크와 같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마디로 철두철미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박진수 : 그러니까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에서 기본은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세계 제패야망을 실현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오 일 : 네, 그렇죠. 금방 얘기된 것처럼 부시가 말한 주요관심은 세계 제패야망이고 그 수단은 바로 힘,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뜻하는 거죠. 군사적 우위를 차지해 가지고 그 힘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부시정부가 내세운 부시정부의 총적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박진수 :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시정부의 강경보수적 기질은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좀더 애기됐으면 합니다.

오 일 : 부시는 지난 2월 27일 미국회 상하 양의원합동회의에 참석해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북을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면서 북의 있지도 않은 미사일 위협을 걸고 북과의 대결정책을 한층강화하겠다는걸 시사했구요. 이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실효성이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북과의 미사일협상속도를 늦추고 북의 재래식 무기감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가 하면요. 심지어는 이북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망언까지 연발했어요.

박진수 : 그게 바로 부시정부의 대북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건 북을 테러지원국가로 모독하는 것부터가 삐뚤어진 대북관이라고 봐지는데요.

오 일 : 그렇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북이 걸릴 때마다 이북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라는 메달을 씌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데요. 테러의 왕국인 미국이 다른 ***입에 올리는 것부터가 정말 *** 짝이 없는 일이라 하겠죠. 되돌아보면 미국은 과테말라와 칠레 등에서 조작한 군사반란을 비롯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40여년 동안에만도 100여 차례 군사쿠데타와 수많은 전복, 파괴행위를 감행했죠.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온갖 테러의 진범인이고, 인류공동의 원수이고, 평화의 포악한 파괴자, 가장 교활한 인권유린자라고 세계적인 빈축을 받고 있죠.

박진수 : 그런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북을 테러명단에 계속 올리고 있는건요, 반북 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하려하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는 풀이할 수가 없죠. 미국은 이 땅의 모략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이북의 국제적 권위를 훼손시키고 그 영향력을 막아보려는 비열한 술수를 쓰고 있죠. 부시정권이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이요, 뭐요 하면서 강경 대응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는데요.

오 일 : 그래요. 부시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염불처럼 외워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북미관계개선을 바라지 않고 북미관계를 종래의 적대관계로 되돌려 세우고 극단의 대결도 마다하지 않는 위험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사일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건 북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협의 가해자는 미국이고 피해자는 이북인데요 미국이 한국과 그 주변에 수많은 미사일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수단들을 배치해놓고 이북에 대한 위협과 선제타격책동을 가하려 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 만큼 미국이 북의 위협을 운운하는 건 파렴치한 궤변이고 거꾸로 된 강도적 논리입니다.

박진수 : 네, 거짓은 어떤 경우에서도 진실로 될 수 없는 거죠. 그 같이 이북이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침략과 간섭, 전횡을 일삼는 미국을 위협한다는 건 도대체 말도 되지 않죠. 이렇게 볼 때 부시정부가 북의 위협을 운운하는 건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합리화하려는 것이구요, 그것으로 북을 제압하는데 그 속셈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무모한 책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우리민족의 조국통일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 일 :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반도 정세는 좋게 발전해 왔죠.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죠. 이건 온 겨레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죠. 또 앞으로 정세가 더 좋게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지배층이 냉전시대의 낡은 관점을 가지고 힘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대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어요. 온 겨레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진수 : 네, 그렇죠. 미국의 현 공화당 정부의 보수세력들은 연대와 평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범죄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온 겨레는 미국의 반평화, 반통일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 서야 할겁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부쉬의 100일행적

로동신문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30일부)은 부쉬가 집권한지 100일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글에서 부쉬는 집권후 지금까지 침략과 전쟁을 꿈꾸고 평화를 파괴하며 세계제패를 노리는 힘의 광신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고 지적하였다.

침략과 전쟁의 괴수, 평화파괴자로서의 부쉬의 정체는 그가 힘에 기초한 침략적이고 강권적인 대외정책을 강행추진하려는 호전적인 태도를 거리낌없이 취한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그가 취임연설에서 한 발언들은 미국식 강권질서를 실현하려는 부쉬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며 실지 그는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것으로서 첫 걸음을 떼였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부쉬행정부가 야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여 군사적패권을 쥐려고 많은 군사비를 탕진하고 모험적인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불량배국가로서의 미국의 진면모는 부쉬행정부의 출현후 더욱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부쉬집권팀들의 속심은 중국, 로씨야 등 대국들을 견제하며 세계를 오직 미국만이 지배하고 제마음대로 주무르는 세계로 만들자는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개인필명의 론설은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로서의 부쉬의 정체는 지역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민들의 념원과는 배치되게 반동세력들을 지지비호해 나선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부쉬행정부의 매파적본색과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는 대조선정책에서 낱낱이 드러났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은 부쉬행정부의 대조선강경정책의 본질은 조미관계를 랭각시켜 첨예한 대결에로 이끌어 가며 힘으로 공화국을 압살하자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부쉬행정부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켰는바 이것은 부쉬의 독단주의가 크게 작용한데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위험한것은 그의 독단주의가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여 국제관계에 엄중한 영향과 후과를 미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실로 미국때문에 지난 100일동안 세계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날이 거의나 없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배격받는 부시정권의 힘의 외교정책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0년 5월 1일

미국대통령 부시는 취임하자마자 ≪힘의 외교≫정책을 밝히고 미국이 ≪힘과 권위≫를 가지고 국제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미국은 ≪힘의 외교≫정책을 세계 면전에서 시위하기 위해 지난 2월16일 또다시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공습을 개시함으로써 중동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저들의 강도적 본심을 드러냈다.

현시기 부시행정부가 ≪힘의 외교≫정책을 감행하는 데서 효과적으로 써먹자는 것이 ≪국가미사일방어≫계획이다.

부시행정부는 발족하자 바람으로 세계의 반대와 규탄을 받아 클린턴행정부시기에 그 수립을 연기하였던 ≪국가미사일방어≫계획을 강행추진함으로써 세계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열풍을 몰아오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출현으로 하여 오늘 지구촌에는 평화의 분위기 대신 새로운 냉전의 위험이 조성되고 긴장격화의 분위기가 짙어가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발족한 후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어떻게 하나 야심적인 ≪국가미사일방어≫계획수립을 강행하여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러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방성은 ≪국가미사일방어≫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불량배국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 ≪불량배국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행할 때마다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수법이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저들의 군사패권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구소련에 대한 ≪견제전략≫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핵전쟁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분쟁격화≫와 ≪지역안정≫, ≪인권≫과 ≪민주주의≫등 이런저런 구실을 내들고 무력증강과 강권행위를 계속해 왔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북의 ≪핵의혹≫과 ≪미사일위협≫을 걸고들었던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부시정권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첫째가는 대상지역은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지역은 대국들의 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해서 쉽사리 군비경쟁의 불길이 일어나고 정세가 첨예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차지하고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기도인 것이다.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부터 ≪잠재적 경쟁자≫로 선포했으며 러시아와의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수정, 파기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들은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강행하여 압도적인 군사전략적 우위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해군이 오는 2006년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 소식통은 지금 미해군이 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1단계 배치는 2006년, 2단계 배치는 2007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0년에 그것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일본, 한국에도 배치하려 하고 있다. 그 주되는 목적은 이북을 군사적으로 더욱 압박하고 임의의 순간에 방대한 미사일을 동원하여 선제타격하자는데 있다. 이에 관해 국가안보담당 대통령 부보좌관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는 이지스순양함에 탑재된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하여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순양함들을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적국들의 근처에 배비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었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파렴치한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또다시 한반도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 전주곡으로서 미국은 이북에 대해 ≪위험국가≫니, ≪테러지원국≫이니 뭐니 하는 등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으며 이른바 ≪강경대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무부별한 책동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후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부시행정부의 힘의 외교정책은 군비증강을 촉발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무모한 범죄행위로서 전세계의 배격과 규탄을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힘으로 이북을 압살하고 세계를 제패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대북정책을 통해 본 부시정권의 호전적 정책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5월 31, 6월 2일

이 철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이 철 : 아시다시피 부시 미행정부의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더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100여일간 부시행정부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은요, 특히 대북정책에서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체가 뚜렷이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으면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 일 :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먼저 부시행정부출범이전의 조미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내외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클린턴정권말기에 조미관계에선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었죠. 특히 새 천년대에 들어선 지난해에는 조미간엔 상호 고위특사교환방문이 이뤄지고요, 적대관계의 해소를 선포한 공동커뮤니케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한 일대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외의 일치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올해에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선행자의 조미관계개선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지도 않은 이른바 북의 위협에 광분하면서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다름아닌 미국이 이북을 위협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이건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고요, 세계가 공인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도리어 이북의 위협을 운운하



는 건 언어도단이고 거꾸로 된 강도적 논리인데요. 이렇게 힘의 정책에 기반한 세계제패야망에 들뜬 부시행정부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책을 실감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철 : 부시행정부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책은요, 부시행정부팀의 대북강경언동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먼저 부시망언을 ****봐요. 그는 집권초기 지난 2월 27일 미국의 상하양원합동에서 한 연설에서 이북을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면서 반북대결자세를 일층 강화하겠다는 걸 시사했어요.

그는 이북이 그 무슨 투명성이 없다면서 조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가하면 이북과 미사일협상속도를 늦추고 북조선의 재래식무기감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역설을 했구요. 심지어 이북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지꺼렸습니다. 부시행정부팀의 매파들 또한 대북강경폭언을 연발하고 있는데요. 미국무장관 파월을 위시한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하나같이 북에 대한 이른바 검정을 운운하면서 북의 붕괴론까지 떠들어댔어요. 특히 파월국무장관은 이북의 재래식군사력감축문제를 주장했구요. 미국회상원외교위 위원장이라는 자는 미-조기본합의문 폐기 등 더욱 강경한 대북노선을 취할 것을 부시에게 요구했어요. 또한 태평양지역미군총사령관은 이북을 제1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했구요.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은 북조선근처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이 철 : 이북근처에 미사일배비에 관한 말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실제로 이북의 미사일에 배비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동해에 요격미사일이 장착된 이지스함 두척을 새로 배치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 일 : 네, 맞아요. 이 사실이 영국의 군사전문잡지의 구체화되지 않은 탄도미사일폐기하라 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잡지는 미국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새 미사일 방어계획은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5년쯤에야 실전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 해결책으로 우리 나라 동해에 이지스함대을 배비하는 방안이 미해군에 의해 제기됐다면서 그 첫째 방안으로 앞으로 1년이나 2년 반안에 이북에서 20내지 5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에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이건 이북을 침공하기 위한 부시행정부의 호전적 폭언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를 실감케하는 매우 무모한 전력증강책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철 :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남의 호전적인 군부당국과 공모해서 이북을 겨냥한 최신형 무력증강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죠.

오 일 :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은 9천 8백만달러를 들여 미국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사용될 최신형 미사일발사대 3기를 비롯해 5억달러에 달하는 여러 가지 관련부품을 미국에 정식 주문했구요, 미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미호전광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 발사대를 새로 건조할 구축함에 설치해서 해상과 공중을 장악하고 어리석게도 미사일로 이북을 공격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의 군당국자들은 올해의 군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많은 15조 4천억원으로 정한데 이어 차세대 공격용 헬기와 전투기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등 초현대적 무기구입을 새롭게 결정하고요, 앞으로 5년간 35조원을 투자할 중기국방계획까지 세워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철 : 미국은 말이죠.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문제를 걸고들면서도 군당국의 미사일생산과 구입을 승인하고 각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침략적이고 호전적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그래요. 부시행정부는 이북의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까지 불러다 미국회에 내세워 이북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이라는 증언을 하게 했구요. 이북의 이른바 대포동2호 미사일발사가능성까지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호전적인 매파세력들이 이북에 대한 검증과 상용무기감축 등 전제조건들을 들고 나오면서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압살책동에 혈안이 되는 건 조미관계의 개선과정을 파괴하고 힘의 대결을 몰아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철 : 부시행정부의 침략적, 호전적 정체는 말이죠.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이른바 연합전시증원연습을 위시해 극히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데서도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예, 그래요. 한미호전세력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반도위기상황시 미본토를 포함한 미군의 효율적인 전력지원을 목적으로 실전분위기 속에서 연합전시증원연습을 벌였습니다. 이건 집권초기부터 대북강경정책을 표방한 부시행정부가 그걸 실천행동에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이란 말그대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모험적인 전쟁도발정책으로써 그건 이북과의 대화포기 및 힘의 대결전환이라고 하겠는데요. 조미관계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걸 공공연히 선포한 것으로 됩니다.

미국호전광들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주한미군2사단 병력을 내몰아 경기도 파주와 의정부, 동두천일대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였구요. 이와 때를 같이해 한국의 육군수도방위사령부도 지난 7일부터 13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야외기동훈련을 벌였어요. 이 훈련엔 현역과 예비군 무력이 참가했는데요. 대규모 차량기동연습도 동시에 실시됐어요. 한미호전광들의 이같은 움직임들은 매우 심상치 않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철 :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와 그에 공조하는 한국의 군당국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같은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은 목적과 내용, 시기와 규모로 볼 때 극히 위험천만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기동훈련이나 전시증원연습은 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벌이는 건데요. 전투기들의 비행연습이 벌여지고 대규모차량들이 이동하며 현역과 예비역이 군사연습에 동원되는 건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부시 새 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때에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인 것으로 해서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 철 : 현 미국정부와 한국 군당국이 벌이고 있는 이 무분별한 반북전쟁압살책동으로 화해와 완화의 길을 걷던 남북관계가 역전되고요. 또 조미교전관계가 폭발적 계선으로 치닫는 파국적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부시행정부와 이땅의 사대매국적인 호전광들은 머리를 식히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오 일 : 네, 그렇습니다. 이북은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대북강경압살책동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대응조치는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고 그 폭과 심도에서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올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을 저지른 불운아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북침전쟁의 불장난에 매달리는 미국과 이땅의 호전광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건 명백한 것입니다.

이 철 :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대북강경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겨냥한 미군의 새로운 군사전략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 90년 8월 21일

부시행정부가 종전의 ≪두개 동시전쟁승리전략≫(윈윈전략)을 폐기하고 새 전략안을 채택했다. 이 전략에 따라 해외에 있는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감축하는 대신에 신형무기개발에 자금을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윈윈전략≫을 폐기하더라도 주한미군 병력수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포했으며 최첨단무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윈윈전략≫이란 1991년에 확정된 것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와 중동에서 동시에 전면전쟁을 수행할 것을 규정한 세계제패전략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전략을 극적으로 방향전환하여 아시아로 전략중심축을 옮기는 아시아중시전략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과 중동 등 지역에 있는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500여개소의 미군기지와 시설, 10만여명의 병력과 함께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1, 000여대의 항공기, 6척의 항공모함, 30여척의 핵잠수함 등 200여척의 함선과 6, 500여개의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다. 이 지역처럼 미국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된 곳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다른 지역의 미군무력을 더 끌어들이며 2개의 기동여단을 창설하여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은 대국들의 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하여 쉽사리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정세가 첨예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지역에 해외주류무력을 집중투하하려는 것은 이 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고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함께 군사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실제적 지배자로 군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부터 ≪전략적 경쟁자≫, ≪잠재적 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군사전략방향전환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북을 압살하자는데 있다.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고 한반도전체를 거머쥐며 이곳을 발판으로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을 실현하려는 것은 미국 역대 정권의 변함없는 기도이다. 미국이 ≪윈윈전략≫을 폐기하여 유럽, 중동 등에 배치하였던 군사력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기어코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서이다.

역대 미행정부는 이북의 사회주의를 허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정책도 유화정책도 다 실패했다. 이렇게 되자 새로 집권한 호전적인 부시행정부는 대북 초강경압살정책을 실시하면서 기회가 조성되면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매파세력들은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요격미사일을 장비한 최신예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비하려는 등 아주 호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철저히 침략전쟁도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한반도정세를 폭발적 계선으로 이끌어가는 극히 위험한 전략이다.

우리는 미국의 침략적 기도를 똑똑히 알고 반미자주화,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보다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미제의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

박은철 / 구국전선 주체 90년 9월 1일



이북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전쟁책동이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출범이후 갈수록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선 미제는 방대한 무력을 한국땅에 들이밀고 있다.

휴전선중부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병기창고를 연상시키는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수천대의 ≪MI≫형 탱크와 장갑차들이 꽉 들어차 있다.

이 장비들은 ≪유사시≫ 미국본토에서 응원부대가 도착 즉시 넘겨받을 수 있게 미리 배치시켜 놓은 것이다.

얼마전 미국은 새로 편성된 160특수작전 항공단소속의 ≪에코≫부대와 그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607지원대대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한국에 ≪MK41≫미사일수직발사체계장비를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총 비용이 9,800만달러인 이 발사체계는 오는 11월에 한국의 구축함에 설치되게 된다.

한편 미제는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에 이용될 장비도 서슴없이 한국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외신은 미해군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앞으로 동해에 이지스함선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사실들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미국의 고위당국자는 그것을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미제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이용될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와 관련부품들을 ≪판매≫의 미명하에 한국에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미제의 북침전쟁책동은 전쟁전야에만 보게 되는 빈번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제는 정탐행위를 목적으로 제작한 ≪U-2≫고공전략정찰기를 한반도상공에 띄워놓고 이북에 대한 감시 및 정찰에 광분하고 있다.

또한 ≪RC-135≫,≪RC-7B≫,≪P-3≫ 등 미제의 각종 비행기들이 이북의 지상과 해상에 대한 정찰행위에 혈안이 되어 돌아치고 있다.

그리하여 부시정권이 들어앉은 이후에만도 이북에 대한 미제의 정탐회수는 매월 평균 무려 백수십차례에 달하고 있다. 외신들은 미군이 ≪계속하고 있는 이북감시는 24시간중 한시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침을 가상한 군사훈련을 빈번히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여러 지역들에서 최신예탱크부대가 기본으로 되고 있는 미군2사단이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였다.

또한 얼마전에 미육해공군소속의 각종 전투기 400여대가 평창, 공주, 백아도 여주일대 상공에서 공중타격, 대지타격훈련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한국에서 연합기뢰부설훈련도 벌였다.

미국이 이북의 ≪대규모기뢰부설을 통한 항구봉쇄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벌인 이 훈련은 명백히 이북을 노린 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이 훈련에 미해군의 유일한 기뢰전지휘함인 ≪인천≫함을 처음으로 한국에 끌어들여 참가시켰으며 여기에 한국해군의 기뢰부설함 및 소해함들까지 동원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침략기지들에 새로운 무력을 배비증강하고 있다.

이처럼 이북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피려는 미제의 전쟁책동은 하늘, 땅, 바다에서 쉬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제2의 한반도전쟁도발을 노리고 감행되는 미제의 전쟁책동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차단하고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가져다 주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만일 미국이 내외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 전쟁도발책동에 집착한다면 파멸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 리행의 실제적 행동조치 요구

외무성대변인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최근에 발표된 담화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월 21일 우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조선강경발언들을 련발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대응립장을 밝히는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본질은 한마디로 미국이 대화로 나오면 우리도 대화로 응하고 대결로 나오면 대결로 맞선다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두고 우리가 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내돌리면서 조미관계가 악화될수 있는 경우의 책임을 벌써부터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위협할 의사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미행정부의 강경보수적인 립장표명으로 하여 위협 당하고 있는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경수로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경수로제공의 실현전망은 더욱 암담해 지고 있으며 이것은 심한 전력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미기본합의문은 물론 우리가 조미대화를 위한 선의로부터 취했던 위성 및 미싸일발사중지 등의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무한정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우리는 미행정부 당국자들이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할것이라고 한데 대해 류의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조치이다.

우리는 이미 1년전에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고 미국측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바 있다.

미국측은 자기의 책임으로 빚어진 전력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것이다.

미국은 자기의 의무리행을 회피하면서 남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손실을 강요하려는 그릇된 대국주의적관념과 특히는 그 무슨 ≪위협≫이라는 감투를 씌워 저들의 책임을 가리워 보려는 얕은 수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조미기본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해 오고 있는 우리는 미국측에 그 리행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행사할 의지도 확고하다.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한민전≫ 평양대표

(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미국의 현 집권세력이 세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범죄의 길에 공공연히 들어 선것과 관련하여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대표는 미국대통령 부쉬가 최근 공식발표한 ≪미싸일방위≫체계창설책동이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침략적인 군사쁠럭의 확대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보호우산≫을 씌워 준다는 구실밑에 이 체계창설에 일본은 물론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을 끌어 들여 소요되는 자금과 필요한 군사기지들을 확보하고 추종세력들을 군사쁠럭에 망라시켜 침략과 전쟁의 길에 몰아 대는 한편 전략공격무기들을 마음대로 배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보호≫와 ≪방패≫로 묘사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랭전종식이후 세계는 완화와 군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세상 어디에도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엄청난 자금과 고도기술을 요하는 ≪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광분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방어≫가 아니라 공격체계이며 어느 한 나라나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를 겨냥하는 전략체계라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맥카시선풍≫으로 알려 져 있는 반공깜빠니야를 일으켜 동서랭전을 유발시켰다면 오늘날에는 ≪미싸일방패≫를 구실로 제2의 랭전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미국이 몰아 오는 신랭전은 그 성격과 지향점에 있어서 전례 없는 악랄성과 포악성을 띠고 있다.

과거 동서랭전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리념대결, 체제대결이였다면 신랭전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리권대결, 지배권대결이며 동서대결에서 미국이 추구한 전략좌표가 사회주의를 견제, 약화시키는것이였다면 신랭전은 세계를 미국속의 세계로 만드는데 있다.

미국은 신랭전으로 압도적인 군사적우위와 대권적지위를 차지하여 세계를 제패하며 당면해서는 아시아를 장악해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 눈독을 들이는 리유는 이 지역에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과 광활한 시장이 있다는데 있다.

세계는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로 될것이라고 공인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가 손 잡지 못하게 하면서 량자를 다 같이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선택한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기본은 조선반도지배이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은 이곳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의 불을 질러 아시아침략의 결정적국면을 마련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동서랭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남에서 물러 가지 않고 있는것도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니, ≪강경대응≫이니 하면서 반북대결정책으로 6.15공동선언의 리행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발걸음을 가로 막으려고 책동하고 있는것도 이와 관련되여 있다.

범죄적인 ≪미싸일방위≫체계창설로 신랭전을 공식선포한 미국의 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과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세계는 결코 미국의 롱락물이 아니며 우리 민족과 인류는 랭전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권을 실현하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더우기 지금은 레간이 악명 높은 ≪별세계전쟁≫계획으로 동서랭전을 격화시켰던 지난 세기의 80년대도 아니고 부쉬1세가 ≪힘≫의 오만성에 사로잡혀 페르샤만전쟁을 도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랭전종식직후의 90년대 초도 아닌 새 세기, 21세기이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다극화로 확고히 전환되고 있다.

력사는 이미 ≪힘≫의 정책의 파탄을 선고하였다.

미국은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이 쩍하면 떠들군하는 ≪불량배국가≫라는것 역시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정치만화이다.

지구촌에서 추호도 허용해서는 안될 전횡과 횡포를 일 삼는 진짜 불량배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력사상 가장 중대한 실책으로 되는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은 미국의 고립과 파멸을 가속화할뿐이다.

부쉬행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세계지배야망을 버리고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터무니없이 이북을 걸고 들어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는 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철수는 시대의 급선무적과제

≪한민전≫ 평양대표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미국의 현 집권세력이 공화국의 ≪상용무력축감≫을 조미관계의 현안문제로 들고 나오려고 획책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대표는 미국의 현 집권자들은 ≪대북강경정책≫을 떠들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쉬행정부 관리들은 ≪미싸일위협≫이니, 대북정책의 ≪전면검토≫니, ≪강경대응≫이니 하면서 ≪북조선의 재래식무력축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군축문제는 절대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방대한 미군을 이남땅에 그대로 두고 그 누구의 군축을 론하는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주≪한≫미군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주되는 걸림돌이다.

미군의 이남강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미군강점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가셔 지지 않고 이곳이 세계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되고 있는것은 미군이 이남땅을 강점하고 핵전쟁화약고로 전변시켰으며 북을 반대하는 무장도발과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는데 기인된다.

이남에 전개되여 있는 미군전력이 공격형의 북침무력이라는것은 이미 공인되였다.

주≪한≫미군의 임무와 사명은 미국의 대조선반도전략의 제1선에서 제2의 조선전쟁계획을 수행하는것이다.

미국이 ≪전쟁억제력≫, ≪유사시대응군사력≫의 허울을 씌워 현대적전력을 이남에 증강하면서 미군의 작전력과 전투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것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것이다.

주≪한≫미군은 북침전쟁준비단계로부터 이제는 실천단계에로 완전히 넘어 가고 있다.

요즘 미국은 ≪조선반도위기상황시≫ 미국본토를 포함한 ≪미군의 효률적인 전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련합전시증원연습≫을 벌리였다.

이번 연습이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가상하 여 ≪실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조선반도와 그주변 지어 태평양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미군병력의 참가하에 강행된것은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다.

이것은 집권초기부터 대북강경론을 련발하던 부쉬행정부가 이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무모한 단계에 직입하였다는것을 증시하고 있다.

미국은 도발적인 이 전쟁연습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남북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역전시켜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전의 대결상태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상태를 완화시킬 의향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격화시켜 대북전쟁책동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미교전관계의 폭발위험성은 배가로 증폭되고 있다. 미제침략군에 의해 언제 어떤 전쟁이 터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철수는 현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미국은 이른바 ≪쏘련의 남하≫니, ≪북의 남침≫이니 하면서 주≪한≫미군이 그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평화수호≫에 기여하고 있는듯이 광고하여 왔다.

그러나 랭전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 랭전시대의 론리를 가지고서는 미군의 이남강점을 합리화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조선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극적인 사변의 도래는 외세의 존재명분을 더욱 상실케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세변화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서유럽나라들까지도 이북과의 국교수립에 나서며 우리 민족의 통일노력을 지지환영하고 있다.

대망의 21세기에 들어 와 지구촌에서의 완화과정은 가속화되고 외군철수는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외세에 구애됨이 없이 진전을 보인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직시하면서 민족주체적인 통일노력의 거대한 생활력을 실감한 이남민중은 미군의 존재의미를 더욱 의문시하게 되였다.

실제적으로 이남당국과 민중에게 가중한 부담을 강요하고 특권행세로 피해만을 들씌우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이남각계의 지탄은 날로 격앙되고 있다.

미국의 정계, 사회계도 이남에서 미군철수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세와 내외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철수문제를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축문제를 들고 나오는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전략적오유이다.

조선반도에서의 군축에서 선결은 미군철수이며 그것이 실현되는데 따라 남북군축문제도 추진될것이다. 미군철수야말로 시대의 급선무적과제이다.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태도는 부쉬행정부가 조선반도에서 진짜로 군축을 바라는가 아니면 그것을 구실로 긴장을 격화시켜 대북전쟁책동을 강화하려 하는것인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의 현 당국자들은 무분별한 반북대결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남북군축의 선결조건이며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이남땅을 불법강점하고 있는 미군부터 즉각 철수하여야 한다.



랭전식사고와 행동방식으로는 얻을것이 없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는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들어 섰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 인류는 21세기가 반드시 평화와 안정의 새 세기로 될것이라고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통된 리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이 세기적 념원은 새 세기의 시작부터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서랭전선포의 공식적인 첫 폭언이 불길하게 터져 나왔던 미국에서 시대와 력사의 요구에 역행하여 랭전을 부활시키려는 광풍이 일고 있는것이다.

그것이 새 세기의 도래와 함께 출현한 부쉬새행정부의 질적구성 그리고 그들의 호전적대외정책구상과 관련되여 있다는것은 이미전에 론의되여 왔으며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된 부쉬는 취임연설에서 자기의 대외정책구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자유의 적, 미국의 적들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계에 관여해 나갈것이다. 력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바로 그것이기때문이다.≫

부쉬가 말하고 있는 ≪자유≫란 미국식≪자유≫, 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대국의 전횡이며 따라서 그 적이란 미국의 전횡에 맞서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는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가 앞으로도 ≪세계에 관여≫해 나갈것이라고 한것은 지난 날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리익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한 횡포한 내정간섭과 압력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는것을 의미한다.

부쉬의 대외정책방향이 이처럼 랭전적사고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는것은 랭전에로의 ≪복귀시도≫를 체현하고 있는 그의 정책담당자들의 구성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현재 부쉬행정부의 안보 및 대외정책담당자들로서 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부대통령 체이니, 국무장관 포웰, 국방장관 람스펠드,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 라이스 등은 모두 지난 시기 포드와 레간, 부쉬 행정부의 요직에서 반쏘반공랭전전략을 작성하고 실행하던 강경매파들이다.

바로 이들에 의하여 오늘 부쉬행정부의 랭전적대외정책구상이 극히 호전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것이다.

랭전에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이 그 구상실현의 첫 대안으로 떠 올린것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특히 미국의 전횡과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고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강경정책수립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미국선거력사상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대혼란속에서 가까스로 정권을 넘겨 받은 첫 시기부터 우리 공화국을 ≪자유의 적≫,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북조선위협≫설을 류포시키는 한편 그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지어 ≪북조선정권의 생존보장에 도움≫을 줄수 있기때문에 일본이 공화국에 대한 과거청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인륜적인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무엇때문에 있지도 않는 ≪북조선위협≫설을 그처럼 끈질기게 류포시키며 랭전에로의 복귀를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력사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인 리유가 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비극적사태가 초래되였을 때 미국의 강경매파들은 그것을 랭전에서의 저들의 ≪승리≫로 과신하면서 미국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론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본질을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자본주의만이 지배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유일한 초대국으로 하는 ≪단극화된 세계≫, 그 어떤 지역문제들도 미국의 지휘하에서만 해결하는 그러한 세계질서라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쏘련의 붕괴로 동서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세계는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갔으며 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된 사회주의재생운동은 전 세계적범위로 급속히 확대되고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건드릴수 없는 강력한 정치군사적실체를 가진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결국 랭전의 ≪승자≫라는 월계관을 쓰고 재선에 나섰던 현 미국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쉬는 선거에서 패배하고 공화당 매파들은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수치를 당하였다.

이것은 공화당매파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겼으며 그들은 그 ≪한≫풀이로 클린톤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대조선정책에 대하여 사사건건 비난하고 강경일변도정책을 끈질기게 제창해 나섰다.

미국의 강경매파들을 더욱 불안초조하게 만든것은 방대한 경제적잠재력과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하여 그들이 탐욕의 눈길을 못 박고 정치군사적영향력의 확대를 노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에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조선민족끼리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변이 도래한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사태발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지위확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지지를 불러 일으켰으며 지난 랭전시기 우리 공화국과 소원한 관계에 있던 영국과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까지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우리와 련이어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우리 인민의 통일지향을 지지환영하게 하고 있다.

이 모든것은 미국의 강경매파들로 하여금 저들이 결코 랭전의 ≪승자≫가 아님을 통감하게 하였으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가일층 증대시킬 구실은 물론 세계도처에 배비한 병력유지의 명분마저 상실하게 하였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리성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다면 이러한 력사적 기회에 조선인민에게 민족분렬의 고통을 강요한 저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서 응당한 책임을 찾았어야 했을것이다.

력사적 및 정치군사적견지에서 랭정히 고찰할 때 남조선주둔 미군이 조선통일의 암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교란자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조선의 분렬은 50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대립과 긴장상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항시적인 전쟁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 그것이 조선반도의 통일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랭전이 종식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력사적국면이 조성된 조건에서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리유란 조금도 없다.

그러나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은 오만하게도 ≪미국의 리익에 어울리지 않는 령토적 및 사회적실태를 수정≫하는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 온 랭전의 교리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의 구실을 새롭게 마련하며 조선반도를 기어이 전쟁의 발화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이 ≪북조선위협≫설을 내돌리며 랭전복귀를 시도하는 주되는 목적이 있다.

부쉬행정부는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하여 미합중국대통령의 담보서한으로 의무리행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전면검토와 파기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최근년간 조미관계개선과 관련한 일련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이 파기된다면 조선반도의 정세가 또다시 지난 세기 90년대초의 대결상태로 되돌아 갈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20세기의 력사와 오늘의 현 실태는 미국의 강경매파들이야말로 전쟁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 내여 세계의 평화를 파괴유린하는 광신적인 호전분자들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이 ≪북조선위협≫설을 내돌리며 랭전복귀를 시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국가미싸일방위≫체계를 기어이 수립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핵 및 미싸일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저들의 패권적세계전략을 실현하며 미국의 군수독점체들을 살 찌워 주자는데 있다.

알려 진바와 같이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교전국들에 무기를 팔아 막대한 리득을 보았으며 급격히 비대해 졌다.

대전후 미국독점자본가들앞에는 엄청나게 팽창된 군수산업을 어떻게 유지할것인가 하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으며 때를 같이하여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권도 사라졌다. 군수독점체들의 대변자들이며 그 하수인인 미국의 강경매파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독점자본가들의 리해관계와 패권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랭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다름 아닌 1950년대의 ≪트루맨주의≫였다.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을 정당화하고 끊임 없는 군비경쟁으로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대변해 준 트루맨의 교리는 그후 력대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초로 되였다.

그러나 랭전종식으로 군비경쟁의 구실을 잃어 버리고 미국의 전횡과 간섭을 배격하는 나라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미국의 강경매파들은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출로를 다시금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서 찾기 시작하였다.

부쉬행정부가 강행하려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이렇듯 전세계를 또다시 군비경쟁에 휘말려 들게 할 랭전복귀의 산물이다.

오늘 핵 및 전략무기의 세계적인 보유실태를 고려할 때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 본격추진되면 그것은 곧 세계의 군사전략적균형과 안정을 파괴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여기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을 자극하여 세계적판도에서 대대적인 군비경쟁으로 확대되리라는것은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이미 로씨야와 중국은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도 거듭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배격 당하게 되자 미국의 강경매파들이 들고 나온것이 바로 ≪북조선위협≫설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미싸일이 당장 미국본토를 타격이나 할듯이 ≪위협≫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강도적궤변이며 문자그대로 언어도단이다.

랭전의 종식으로 핵보유국들을 전략적적국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직접 지명할 명분을 잃게 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희생물로 삼아 ≪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나라들간의 불신과 리간을 조성하며 전략적리익을 추구하는것이야말로 비굴성과 교활성의 극치라 할수 있다.

미국은 랭전시기에도 저들의 처지가 불리할 때마다 곧잘 ≪평화≫와 ≪긴장완화≫를 떠들며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대결을 피하고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압력과 무력간섭이라는 악랄한 수법을 상투적으로 써 왔다.

세계를 수십번 파괴하고도 남을 저들의 핵 및 미싸일무기는 아무런 위협도 아닌 ≪억제력≫으로 되고 미국의 현실적위협과 공갈속에서 반세기이상을 대결하며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위협≫이 되고 ≪우려≫로 된다는 론리야말로 전형적인 불량배국가, 테로국가의 깡패식론리이다.

미국의 정치도덕적저렬성과 파렴치성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류가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21세기에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강도적론리, 깡패식론리를 들고 나오고 있는 미국의 강경매파들은 랭전식사고와 행동방식이 빚어 낸 환상적≪힘≫에 대한 과신과 망상으로 하여 정치도덕적체면도, 군사적분별도 다 잃어 버린것이 분명하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깡패식론리에 기초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을 파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부쉬행정부가 시대와 력사발전의 법칙과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식 위선과 오만에 물 젖어 아직도 낡아 빠진 ≪힘의 정책≫-랭전정책에 기초하여

주권국가를 억누르겠다고 ≪강경대응≫을 운운하는것은 아무에게나 다 통하는것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인들스스로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미국이 랭전을 선포한 후 처음으로 도발한 침략전쟁에 정의의 전쟁으로 대답하여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깃부셔 버린 나라이다.

미국은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을 깔보고 덤벼 들었다가 세계의 면전에서 대참패를 당했던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과 함께 ≫푸에블로≪호 무장간첩선사건, ≪ec-121≫간첩비행기사건 등 빈번히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였던 군사적도발사건들의 후과와 교훈에 대하여 잊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오늘의 조선은 지난 세기 50년대는 물론 60년대, 70년대에 비할바 없이 강력해 진 자주의 정치군사강국이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군사과학이 끊임없이 비약하여 온 20세기를 총화하고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의 시대에 핵이니 미싸일이니 하는 무기의 ≪힘≫이 결코 미국의 고유한 독점적특허권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핵기지 또한 난공불락이 아니라는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

조선은 미국에 그 어떤 빚을 진 나라가 아니며 더우기 미국의 강압적인 ≪힘≫의 요구에 굴복하여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포기할 나라는 더욱 아니다.

아직까지 조선은 미국땅에 포탄 한발 던진적이 없지만 이제 다시 미국이 조선을 건드리고 전쟁으로 도전해 온다면 조선인민은 지난 전쟁시기의 복수까지 합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건 추호도 용서한적이 없다.

우리는 전쟁에도 대화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

랭전식사고와 행동방식을 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하는것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미국자신을 위하여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는것을 미행정부는 때 늦기전에 깨닫는것이 좋을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있는것이 아니다.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의 립장수준에 도달되야 대화재개 가능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8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 부쉬행정부의 관리들이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대화재개에 큰 관심이나 있는듯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미국이 대화제의에 대한 공식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가하면 미국무성 대변인도 우리와 전제조건 없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렇듯 부쉬행정부내에서 최근 표시되는 대화재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우리는 미국의 실제적인 대조선정책과 대화의지에 대해 론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지금 전제조건 없이 협상을 재개하자고 하면서도 쌍방이 마주앉기도 전에 제시한 일방적인 협상의제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상용무력까지 걸고 든 미국의 협상의제들은 극히 일방적이며 그 적대적성격으로 하여 받아 들일수 없는것들이다.

이러한 의제들이 철회되기전에는 대화재개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현행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을 버리고 최소한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에 취했던 립장수준에 도달될 때에 가서야 조미대화의 재개가 가능 해 지게 될것이라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다.

미국의 선임행정부시기 조미쌍방은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과 뉴욕조미공동콤뮤니케 등을 통하여 오랜 불신과 대결, 오해의 근원을 제거하고 관계를 정상화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쌍방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여야 할 정치도덕적 및 법적의무를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는 자체의 핵계획을 동결시키고 미싸일발사중지 등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것으로 합의문에 충실하여 왔다.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미국측의 불성실한 리행으로 조미관계에서 일련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에 조미대화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미합중국대통령방문도 예정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수준에서 쌍방이 호상존중과 리해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대화를 건설적으로 계속하였다면 랭전의 종식을 선포하고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미관계문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해결되였을것이다.

이 모든것은 1994년부터 본격화된 조미대화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2000년말까지의 적지 않은 기간 수 많은 난관을 타개하면서 쌍무관계와 중요한 국제정치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토대를 원칙적으로 마련 해 놓았다는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후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새 행정부가 당파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한 랭전식대외정책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미국국민의 리익, 미합중국의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시종일관한 대외정책을 견지하였다면 ≪대조선정책검토≫니, ≪대화중단≫이니 하며 정세를 혼란시키고 쌍무관계를 악화시키는것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근 반년이라는 시간을 부질없이 탕진한 미행정부가 대내외적인 압력에 못이겨 그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대화재개≫를 표명하고 오늘에 와서는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이 취하고 있는 실제적인 태도와 립장에서는 진정한 대화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대화재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대화의지를 실천으로 보여 주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화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지난 기간 조미대화에서 힘들게 이룩한 기본토대를 허물지 않는다는 립장을 원칙적으로 표명하는것으로 될것이다.그것은 곧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고치고 최소한 클린톤행정부집권 마지막시기에 취했던 립장수준에 도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떠나 ≪대화재개≫를 론하고 그 누구에게 공이 넘어 갔다는 식의 론조를 되풀이 하는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빈말치레에 불과하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결코 일방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며 그것은 조미관계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확증된 가장 공정한 쌍무대화의 원칙이다.

우리는 조미대화에서 시종일관 자기의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이다.

공은 엄연하게 미국측에 남아 있다.

우리는 미국측의 금후 태도에 대하여 주시할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좌시할 수 없다

구국의 소리 방송 논설 / 주체 90년 6월 3, 4일

반세기이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돌며 남북간의 관계가 반목과 대결속에서 경직되어오던 한반도에서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인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단 50여년만에 처음있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발전으로서 우리 민족의 요구와 지향, 역사와 시대의 취향에도 걸맞는 사태의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7천만겨레는 물론 세계진보적인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미국은 한반도정세가 좋게 변화발전하고 그것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데로 급선회하자 이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길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강경보수세력과 호전계층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발전을 외면하고 있지도 않는 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대북적대시정책, 반북압살책동의 도수를 일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무장관 파월,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블레어를 비롯해서 강경보수세력과 호전계층이 북을 불량배국가, 테러 지원국 으로 몰아 붙이며 제1주적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북의 근처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 한다는 등 호전적인 망언들을 마구 늘어놓으며 반북압살책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침을 위한 침략무력을 이땅에 끌어들이고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이면서 한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부시행정부가 각종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작전용 엠에이치 47이 헬기를 비롯해서 최신형미사일들을 이 땅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 있고 동해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우선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본토를 포함한 미군의 효율적인 전력증원을 목적으로 한 연합증시증원연습 등 대규모기동훈련을 연일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호전계층의 이 같은 침략적 망언들과 위험한 전쟁준비책동은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시행정부이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압살책동이 더욱 무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이 같은 대북적대시정책, 반북압살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저의는 한마디로말해서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파괴하고 통일을 차단하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킴으로써 한국강점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의 구실을 마련하며 나아가서 이북을 제압하고 한반도전체를 장악, 지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전체를 자기들의 침략적 군사기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략을 실현할 목적밑에 대한반도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이북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과 제재, 고립압살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해 왔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고 있는 데 불안을 느낀 부시행정부는 이것이 저들의 대한반도전략,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로 된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대북적대시정책, 반북압살책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행정부의 강경보수세력과 호전계층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를 좌시한다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이 차단되고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위험성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민족, 민중뿐이며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미국뿐입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북에 대한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호전계층의 무모한 침략정책준비책동은 계속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임의의 시각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압살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은 동족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흉계를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미국이 대북강경정책, 반북압살책동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은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그 위험성과 침략적 본성을 똑바로 보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국적인 민주단체들과 선각자들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속에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방해자이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온갖 민족적 재난과 불행,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반미투쟁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벌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민중들과 민주애국단체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압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연대하고 공동보조를 맞춰나감으로써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 가로 막는 미국을 비난

조선아태위 대변인 성명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미행정부가 남조선이 우리와 하는 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리우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해 나서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미행정부는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이니,≪상용무기위협≫이니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부진상태에로 몰아 넣어 파탄시키려는 책동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원래 금강산관광사업은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망을 풀어 주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과 동포애적대용단에 의해 마련되였으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조선 현대그룹사이에 민간급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였다.

그렇게 되여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내외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격페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민족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이 마련되였으며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게 되였다.

이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친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으로서 온 겨레는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이처럼 금강산관광사업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현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출발점으로 되였으며 전 민족공동의 사업으로 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은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달가와 하지 않았다.

더우기 미국에서 부쉬행정부가 서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가로 막기 위한 책동은 최절정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였다.

그들은 우리가 관광대가를 ≪군사적목적에 리용≫한다는 터무니 없는 여론을 오도하였고 그 신빙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우리가 관광대가를 ≪미싸일개발에 리용≫한다느니 우리의 ≪위협이 지난해 보다 더욱 심각해 졌다≫느니 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깜빠니야를 벌리였다.

미국의 국무성과 정보계,군부우두머리들은 남조선의 관계자들을 불러 대며 금강산관광문제를 놓고 압력을 가하고 온갖 방해책동을 다 하였으며 금강산관광을 포기하도록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을 비롯한 군사우두머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진실한 념원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맡아 나선 현대그룹에 로골적인 압력과 횡포한 간섭책동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현대그룹이 경영난을 겪는 기회를 리용하여 어떤 회사들은 강매의 방법으로 먹어 치우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은 채권단에 넘기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대그룹자체를 해체하게 하고 여러 계렬사들이 관광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의 일부 우익보수세력과 반동언론들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비방중상하면서 이를 방해하도록 부추기였다.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일부 우익보수세력들은 관광사업에 ≪수익성이 없는 적자사업≫이니 ≪퍼주기식 사업≫이니 하는 각종 딱지를 붙여 비난하다 못해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해 별의별 시도를 다 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이야 말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도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협력사업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진척시켜 나가는데 기본장애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북남사이에 진행하는 민족적인 사업을 가로 막아 나서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시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금강산관광사업을 집요하게 방해하여 나선다면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항의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미국 부시 신행정부의 패권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최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초기부터 강력한 패권정책을 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온 민족의 염원과 전세계평화애호 민중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6일 미국의 부시 신임 대통령은 ≪미국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면서 국제문제에 대처할 것이며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전쟁과 패권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부시 신임대통령과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일련의 행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철저한 미국중심의 패권정책을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파기를 감수하면서라도 국가미사일 방어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대단히 패권적이고 파괴적인 무력증강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부시 신임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가 절대선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간 세계 각국과 맺어왔던 각종의 국제협정들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라도 폐기하고 무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대단히 극악한 패권정책이다.

국가와 민족사이에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지향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은 앞장에서 이를 거부, 파탄내 왔다.

냉전시기 군비증강을 경쟁적으로 주도하여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것도 미국이었으며,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쟁도발, 군사적 압살 정책으로 자주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것도 미국이었다.

역사는 지난 수십년 간 미국 주도의 패권 정책이 얼마나 많은 분쟁과 내정간섭, 전쟁을 불러왔는가를 피로써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의 패권을 위해 세계 각국의 평화애호 민중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전세계 민중들을 전쟁의 망령 속에 밀어 넣지 말라!

새로운 21세기는 자주와 평화, 호혜평등의 시대이다. 이것이 전세계 민중들의 한결같은 요구요 의지이다.

미국은 자신의 정책이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전세계 민중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임을 똑똑히 자각하고, 전세계 민중들의 거세찬 저항속에서 역사에 종말을 고하지 않으려면 잘 처신해야 함을 명심하라.

우리는 미국의 패권정책이 특히 우리 민족에게 예민하게 겨누어져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기왕에 해결된 핵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이나, 미사일 문제를 빌미 삼아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응당히 수행하여야 할 북미합의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빌미를 잡아 북미관계 진전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남측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면서 내정간섭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기도가 결국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으며 전쟁을 도발하여 왔던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은 온 민족의 일치된 지향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자주와 평화로써 분쇄하고,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대 전환을 열어내었으며, 오늘도 조국의 통일을 향한 온 민족의 거세찬 진군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지배, 긴장고조 정책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1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시의 NMD체제 구축 강행 발언 규탄 성명

전국연합대변인실

1.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 워싱턴에 있는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라크,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과 해상 및 공중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부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가장 급박한 위협은 이라크등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이라며 ≪변화된 위협에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주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옛소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은 ≪더이상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이를 폐기 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2. 우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방대학에서의 발언은 세계평화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북한을 위협하여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에 대한 전쟁책동 행위로 본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미사일 방어체제(NMD)에서 국가개념을 뺀 미사일 방어체제(MD)로 표현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장치를 구상하고 있고, 클린턴 행정부의 지상 방어체제를 확대해 해상·공중·위성 방어체제까지 구축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방어가 아니라 침략공격 수단이 되고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결코 묵과 할 수 없다.

3. 현재 추진중인 지상·해상·공중·위성 방어체제는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해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 이라크등 더 많은 테러지원국과 불량국가를 만들고, 이것을 핑계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수조억 달러를 거둬들여 미국 군수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것에 눈이 멀었다. 미친개처럼 날뛰고 있는 부시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미국이 진정 깡패국가, 테러국가, 불량국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4. 이미 돈에 눈이 뒤집어진 부시 대통령은 군비증강을 촉발하게 될 ABM 제한협정 파기를 공공연히 떠들어 대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등 핵무기 보유국의 저항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MD강행 발언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냉전체제로의 회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한국등 미국 동맹국들에게 전쟁의 먹구름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5. 김대중 대통령은 5월 2일 미국의 미사일방어(NMD, TMD)계획을 설명하는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데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협함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책동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MD계획에 지지 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바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동맹국 공조≫를 들먹이며 미사일 방어를 강행하려는 이때에 단호하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은 세계평화를 옹호하는 전세계 민중들에게 대한 배신행위이며, 노벨평화상의 권위에 먹칠을 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6. 우리는 냉전체제를 부활시켜 무기를 증강하고,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책동,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무기강매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미국의 MD계획을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 아울러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개망나니 같은 처사에 대항해 자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힘을 모아 반미, 반전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MD강행에 대해 굴욕적인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를 단죄 규탄한다.

7. 미국이 MD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운운하며 이긴질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협박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자주와·평화통일·민족대단결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거대한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MD계획을 추진하는 미국 앞에 차려질 것이라곤거세찬 반미 투쟁과 민족통일에 요격탄 뿐임을 가까운 장래에 알게 될것이다.

2001/05/03 (16:07)

엠디(MD) 강요, 무기 강매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7월 27일 미 국무장관 파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파월의 방한 목적이 미사일방어망(MD)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고, 또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무려 100억 달러(13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의 MD 구축은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MD 구축은 ≪방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실제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반면 미국만이 선제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패권적 발로다. MD 구축은 또한 냉전 해체로 위기에 빠진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에게 무한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데 그 의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MD 구축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무한 군비경쟁과 자원낭비를 불러오며 세계를 다시 과거의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7월 14일 MD 구축을 위한 제4차 요격 실험을 강행하였으며,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ABM) 협정을 파기하고 앞으로 5년간 무려 20차례나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군사주의적 패권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깡패국가≫임을 명확히 밝혀 둔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우리 민족을 볼모 삼아 MD 추진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최근 자국 대사관과 미군사령부에 보낸 훈령을 통해서 MD 구축이 단기적으로는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미국은 이미 2003년까지 해상 미사일방어망의 핵심 체계인 이지스함 2척을 동해 상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반도와 그 인근에 본격적으로 MD 무기체계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야흐로 미국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의 첫 실험장이자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잇속을 채워 주고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려는 부시 정권의 한국 정부에 대한 무기 강매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파월은 취임하자마자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 보잉사의 F-15K 전투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정도로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F-15K 전투기는 한국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낡은 기종이자, 이 생산라인에 미국 노동자 5000 여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고 한다. 부시 정권은 한국 민중들의 고혈로 미국 군산복합체와 자국의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미국산 무기 도입이 남북간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어디 그뿐인가? 부시 정권은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이른바 과거 핵 검증, 미사일 개발 및 수출 금지, 재래식 전력 완화 등의 의제를 내세워 대북 강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남측 당국의 북에 대한 전력 지원을 가로막는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6·15 공동성명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부시 정권의 대북 강압정책과 남측 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분단이래 처음 조성된 우리 민족의 통일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이 파월은 한국 정부에 MD 참여, 무기 강매, 대북 강압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농락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다름 아닌 죽음의 사절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분노를 담아 감히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부시 정권과 파월의 방한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우리는 전 민족의 힘을 모아 미국의 MD 구축, 무기 강매, 대북 강압정책을 파탄내고 기필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쟁취하고 말리라는 것을 다짐해 두는 바이다.



2001년 7월 25일

MD 저지 공대위, 민중연대, 통일연대, 소파개정 국민행동

매향리 범대위, 미군기지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에서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3월 22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날로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상황에 관해 말씀해 주시죠.

윤정원 : 네, 한국기독교단체협의회가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항의하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반대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은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남북화해분위기에 역행하며 분단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정부의 냉전적이고 반평화적인 발언에 대해 엄중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죠. 이에 앞서 소파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등 8개 반미단체성원 100여명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해 주한미대사관 옆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씨는 미국정부가 힘의 정책에 매달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제네바합의 등 북미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해 미사일문제 등 양국사이의 현안들을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밖에도 각계층민중이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을 입을 모아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는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날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사회각계에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언론에서도 미국의 대북강경고압자세를 규탄하는 글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문이 한겨레인데요. 한겨레는 최근 미국강경파들에게 고함 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어요. 사설은 부시행정부출범 뒤 북미관계가 클린턴행정부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왔으며 그것이 50년만에 처음 찾아온 한반도의 화해, 협력과 평화의 기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죠. 사설은 부시가 한미정상회담 뒤 행한 발언이나 헬름즈와 같은 극우익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들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을 했어요. 사설은 또 미국이 한반도 운명에 끼쳐온 영향은 막중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지금 미국내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냉전대결체제로 전개된다면, 그래서 한반도에 찾아온 화해, 협력과 평화의 기회에 중대한 장애물로 등장한다면 한반도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뉴코리아타임즈도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침략주의정책을 그만둘 것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는데요. 신문은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례 남북관계에 붉은 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클린턴 당시의 긴장완화의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책동하면서 침략주의정책수행을 추구하고 있다고 거듭 폭로를 했습니다. 신문은 부시정권이 침략주의정책을 그만두지 않으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축출되고 말 날이 반드시 오고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회자 : 네,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자세는 우리 민중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미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해설한 논평원의 글을 실었어요. 논평원은 새로운 미행정부가 들어앉으면서 한반도문제해결과 남북대화의 발전을 위한 길에 장애가 조성이 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논평원은 미국의 대북강경자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정책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않는 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강력히 비난한 것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나라 인사들이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가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을 규탄하고 있는 건 말이죠. 부시행정부 때문에 모처럼 마련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깨지고 한반도의 정세가 계속 긴장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원 : 그래요. 지금 미국은 당치 않은 책동을 **구요 이북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강경대응에 대해 떠들고 있어요.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도발과 침략책동으로 인해서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되돌아갈 그런 위험이 조성되고 있죠.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압살책동에 계속 매달리면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전쟁마저 터질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거구요, 미국이 하루속히 대북강경자세에서 물러설 것을 바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해 하나로 굳게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됐죠. 그 비법적인 책동을 저지, 분쇄하지 않으면 민족의 안전도 구할 수 없고 모처럼 열린 민족자주통일의 길도 닫히게 되거든요. 또 긴장상태가 격화돼 종전의 대결***정세로 치닫게 될거라고 봅니다.

자주없이, 통일없이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있겠어요. 민족의 안전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조국통일도 우리가 이룩해야 하는거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해 부시행정부의 광란적인 대북강경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대북강경책동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요, 미국은 상대방이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렇죠. 미국은 때와 상대를 잘 알고 덤벼야 합니다. 이북민중과 인민군대는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 초에 패배를 모른다는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 놨잖아요. 오늘의 이북은 어젯날 이북보다 더 강하죠. 이북민중과 인민군대는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어요. 강철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을 지니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가 있어 이북은 어떤 대적과도 싸워 이길수가 있어요. 만일 미행정부가 내외여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강행하는데로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쓴맛을 보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매사에 심사숙고해서 행동할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에서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국은 내외의 일치한 요구대로 남북화해분위기에 역행하며 냉전적이고 반평화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즉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충고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4월 30~5월 3일

최근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아나 민족대회당은 최근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미제가 시대착오적인 반북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어 달리면서 이북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많은 침략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이북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가 일본의 사세보기지에 호혜군견사령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사령부는 전쟁시 미일공동작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봐도 미제는 이북을 침략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침략적인 미사일방어체제 수립을 강행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가이아나 민족대회당은 미국의 책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중과 세계평화민중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행위로, 용납 못할 침략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규탄한다. 미국은 반북고립압살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유고슬라비아 요시코부르즈 디토중심, 유고슬라비아노동당, 유고슬라비아사회인민당,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세르비아공산당도 미국의 반북적대시행동을 규탄하여 지난 4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북을 고립압살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이북에 위험국가 , 테러지원국 이라는 부당한 딱지를 붙이면서 이른바 대북강경대응노선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의 목적은 이북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고 한반도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통일 열기를 말살하려는 데 있다. 우리는 미국의 호전적인 반북정책을 이북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남북공동선언 채택 후 남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반평화, 반통일 행위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행정부가 반북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이북과의 대화에로 나와야 하며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유엔연구센터 국장은 최근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을 규탄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는 담화에서

최근 미국의 새 행정부는 관연정책이니, 강경자세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에서 최대의 열점으로 되어 왔다.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어마어마한 무력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반영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사이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어 전체 조선민중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오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전체 조선민중의 의사와 이익, 그리고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염원에 배치된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이북민중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신문 던유워커는 최근 부시에게 저주를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이북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호전적인 발언들은 한국에 최신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대규모의 군사연습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 그 의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부시는 1994년에 체결된 북미기본합의문 이행에 대한 이북의 불투명성을 운운하면서 저들의 강경노선을 합리화해 보려고 하고 있다. 북미기본합의문 이행과 관련한 불투명성문제로 말한다면 이북이 미국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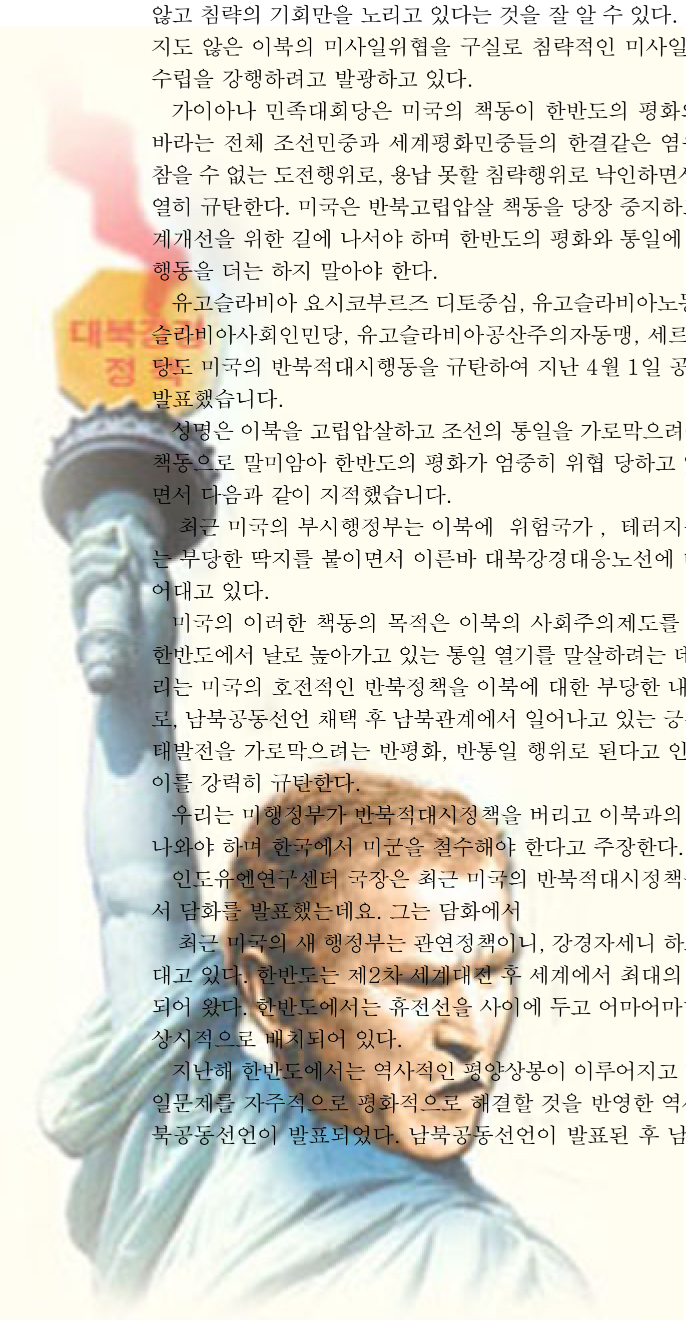
합의문에서 기본핵은 이북이 자기의 핵시설을 동결시키는 대신에 미국이 책임지고 그 나라에 200만 킬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를 건설하여 넘겨주는 것이다. 건설완공날짜로 정한 2003년이 눈앞에 다가온 오늘 미국이 책임진 경수로 건설은 아직 부지정리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 모를 막연한 상태이다.

세계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고의적인 지연전술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북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최근 부시행정부가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지 7년이 되어 오는 오늘에 와서 그 무슨 불투명성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미국은 호전분자들은 지난해 남북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된 후 한반도에서 평화과정이 진척되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호전분자들에게는 언제나 평화시대가 도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다. 전쟁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평화과정이 계속 진척되는 경우 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북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적대시정책은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과정을 파괴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에 큰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 진보적 민중들, 평화애호세력들이 부시행정부의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가려보고 이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에 적극 합세해야 할 줄 안다.

이밖에도 중국, 러시아, 레바논, 페루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정계와 각계인사들, 신문, 방송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반북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하며,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고아가 된 부시행정부

성훈 / 구국전선 주체90년 7월 21일

21세기에 들어와서 핵위협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염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부시행정부는 핵우위, 군사적 우세로 세계 각국의 평화적 지향을 억누르고 1극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무력증강과 전쟁준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에 도전하는 강권과 전횡은 통하지 않는다. 인류를 위협하며 평화를 파괴하려는 부시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마련이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후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태발전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6월13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렸던 나토정상회의 진행과정 하나만 봐도 잘알 수 있다. 나토라고 하면 역대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말하자면 안식처와 같다. 부시대통령은 처음으로 나토가맹국 정상들과 한자리에 모여앉게 되는 이 회의를 말썽많은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나토성원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무대로 이용하려고 타산했었다.

회의에서 부시는 이북의 ≪미사일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될수록 빨리≫배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북의 ≪위협≫을 허위선전함으로써 서유럽나라들과 이북과의 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이 나라들을 반북, 고립압살정책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북을 미끼로 하여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회의참가자들의 지지를 긁어모으려던 부시의 타산은 물거품으로 되고 말았다. 그의 주장과 논거가 사리에 맞지 않는 유치한 궤변이었으며 현실과 상식을 무시한 허풍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장에서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지를 강박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외신들은 부시가 정상회의 연단에서 열변을 토하면 토할수록 회의참가자들 속에서는 반발과 의혹, 경계감만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유럽연합국들 속에서 더욱 고립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여 동맹국들과의 모순이 짙어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었다.

≪교토의정서≫는 날로 우심해지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중요한 국제협약이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국내석유독점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이기적 목적으로부터 국제협약을 배신하고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국들은 미국의 참가없이도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7일 룩셈부르크에서 환경장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유럽연합국들은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뛰쳐나간다고 해도 국제협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연합의 모든 가맹국들이 다음해에 이 협약을 비준하며 이 협약을 이행하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 회의과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와 발언권을 높이며 미국의 강권에 맞서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유력지 ≪몽드≫는 부시가 ≪교토의정서≫를 거부해 나선 것은 ≪국제공동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인류의 생명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도높이 비난했다.

이와 같이 ≪미사일방어≫체제의 전개를 다그치며 ≪교토의정서≫를 거부함으로써 핵전쟁위험과 지구환경의 파괴로 인류의 평화와 생명활동을 위협하는 미국은 국제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심화되어 국제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더욱 몰리우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부시행정부는 국제고아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국제사회,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규탄

미국은 경수로건설지연으로 조선에 끼친 물질적손실을 보상하라

각국 정당, 단체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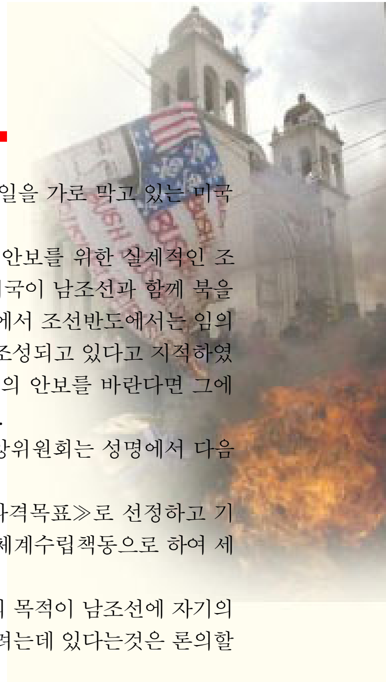
여러 나라 정당, 단체가 미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였다.

가이아나아메리인디안 행동운동은 3월 28일 성명에서 부쉬공화당 행정부는 출현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위협≫과 ≪인권문제≫를 걸고 드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도발적이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책동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들이 조미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는데로 나아가려는 립장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새 세기에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조선의 분렬이 종식되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조선인민과 국제사회계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우간다 철도로동자련맹은 3월 26일 성명에서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격화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세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출현후 평화와 통일 지향적인 조선반도의 정세발전과는 배치되게 있지도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



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조선반도≪유사시≫ 침략무력을 69만여명으로 새롭게 편성하고 많은 무력과 장비들을 이 지역주변에 집결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94년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리행에 따르는 경수로건설을 질질 끌어 오다가 오늘에 와서는 합의문자체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뿐아니라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힘의 정책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경수로건설지연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립적인 핵동력공업발전에 끼친 막대한 물질적손실에 대하여 응당 보상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세와 립장에 서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대한 국제적반향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과 벌가리아공산당(게오르기 지미뜨로브), 수리아공산당(바그다쉬) 총비서가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벌리고 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은 성명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미래를 지향하는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대화들에서 이룩된 전진으로부터의 퇴보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워싱톤이 이전 클린톤행정부시기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하지 않고 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기울여 진 노력들과 국제적협조에 커다란 위험으로 되며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과정에 장애를 조성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세계에서 긴장만을 초래하였던 실패한 ≪랭전≫정책을 되풀이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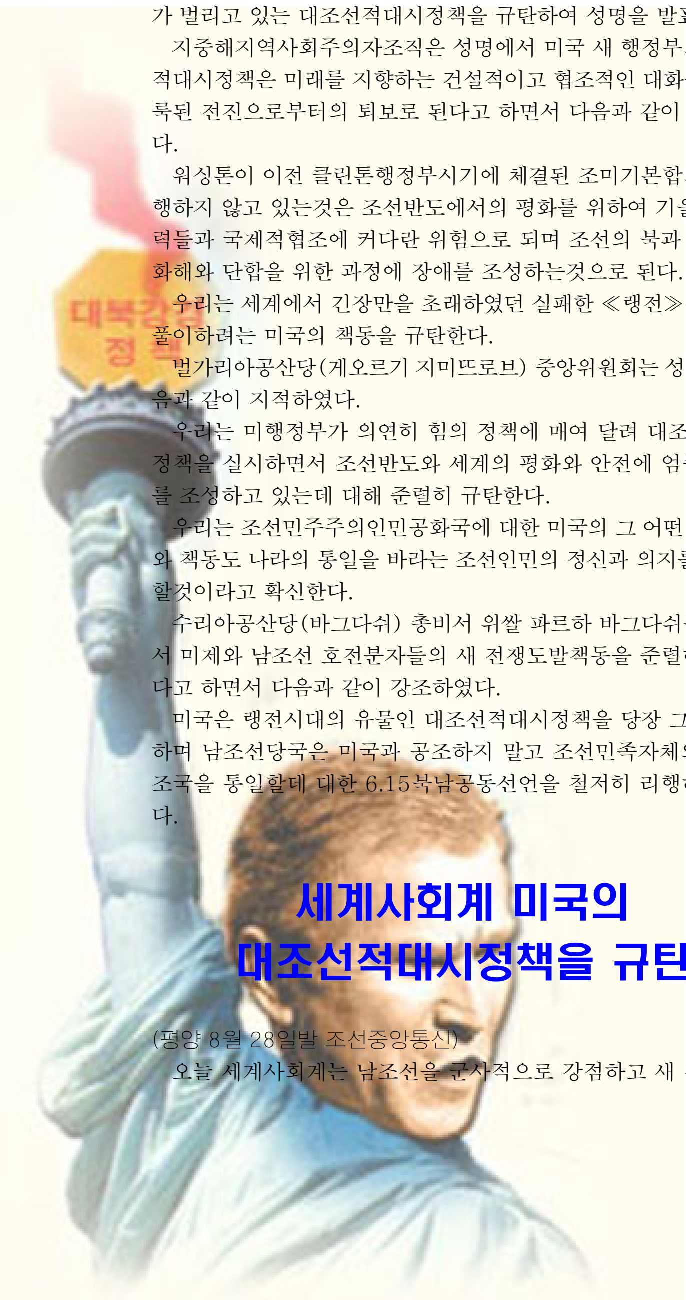
벌가리아공산당(게오르기 지미뜨로브)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행정부가 의연히 힘의 정책에 매여 달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준렬히 규탄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그 어떤 압살기도와 책동도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정신과 의지를 꺾지 못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수리아공산당(바그다쉬) 총비서 위쌀 파르하 바그다쉬는 성명에서 미제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랭전시대의 유물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공조하지 말고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세계사회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세계사회계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면서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미국을 준렬히 규탄하고 있다.

네팔신문 ≪피플즈 터뷰≫는 ≪미국은 안보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북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 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에서의 안보를 바란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되는 타격목표≫로 선정하고 기어이 성사시켜 보려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으로 하여 세계평화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부쉬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강경정책의 목적이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는것은 론의할 여지도 없다.

인디아신문 ≪파블리크 뉴스≫는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하는 글에서 콩크리트장벽은 미국의 ≪두개 조선≫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콩크리트장벽의 존재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을뿐아니라 남조선당국자들을 북과의 대결에로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미국은 조선통일의 암초≫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평화와 화해 , 통일을 위한 북남공동선언리행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는 뷸레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조선에 대하여 더욱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평양상봉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세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통일의지를 꺾으려는 부쉬와 그 행정부의 호전적인 시도들은 실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스위스인사 담화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7월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이번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국제적으로 미제의 범죄적인 강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광범히 벌어 진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양키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철수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낼 때가 되였다.

지난해 북남공동선언의 발표와 조미사이의 고위급접촉으로 이룩되였던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는 부쉬행정부의 출현으로 하여 오늘 수포로 돌아 가고 있다.

새 미행정부는 제2의 조선전쟁을 로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부쉬행정부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첫 타격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미제의 이러한 군사적광증을 규탄하고 미국은 남조선에서 모든 군대와 군사기지, 핵무기들을 철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며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계층민중들이 반미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4월 23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부시미행정부의 무분별한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층민중들은 미국의 반북강경압살책동을 규탄배격하면서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그럼 먼저 각계민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윤정원 : 네, 지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민중은 부시미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과 전국연합,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저지와 한반도평화실현 범국민대회를 가졌는데요. 대회에서 그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이 북의 이른바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대북적대시정책, 강경고립압살책동을 표방해 대화로 나아가는 북미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고 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명목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부시정권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미시위를 벌였어요.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을 비롯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와 성명발표, 반미집회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투쟁들은 우리 민중의 확고한 반미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최근의 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점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윤정원 : 현 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투쟁이 미국의 대북적대시강경노선, 대북강경압살정책을 반대하는 데로 규환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 특히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저들의 한반도전역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해 보려고 대북강경압살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거죠.

각계민중은 미국의 이 같은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부시미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반대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그건 바로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이죠. 부시미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반대하는 투쟁 역시 지난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부시미행정부가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요. 이건 세계적 판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미국의 전력증강책동으로 인해서 초래될 극히 위험한 사태를 반대해서 우리 민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한국당국자들 속에서까지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반대하는 투쟁은 매우 주목되는 투쟁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반미투쟁을 보면 투쟁이 조직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한 계단 발전했다는 점도 응당 지적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정원 : 네,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이 부시미행정부 출범 이후 더 성숙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쟁이 조직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그리고 각계의 연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최근의 반미투쟁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시민들,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각계민중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적극 합세해서 연대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러면 현 시기 반미투쟁을 벌여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윤정원 : 무엇보다도 부시미행정부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강경압살책동을 저지, 파탄시키지 못한다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깨지고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 주리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각계층민중은 부시미행정부의 대북적대시강경노선, 반북강경압살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나가야 하죠.

사회자 : 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는데요.

윤정원 : 물론이에요. 오늘 조성된 정세는 미국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 장애물이고 우리 민중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갈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계민중은 주한미군기지와 함께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할거예요.

사회자 : 반미투쟁에서 중요한 건 투쟁을 대중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각계각층민중이 대중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잖아요. 그러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윤정원 : 네, 광범위한 대중이 반미투쟁에 나서자면 우선 대미관을 바로 정립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은 벗도 원조자도 아니고 통일의 방해자, 민족의 원수라는 인식을 바로 하는 겁니다. 반미투쟁을 대중화하는데서 중요한 건 또 양민학살진상규명문제, 소파협정폐기문제와 같은 사회적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문제들을 쟁점화해서 광범위한 민중이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각계각층이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적극 벌이는 겁니다. 지금 각종 반미투쟁단체들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그 아래에 대중을 단합시켜서 투쟁을 벌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입니다. 각계층민중은 반미자주화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단합해서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41개 시민사회단체,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현장 중계

미국의 NMD, TMD강행에 맞서 전국 40여 개 시민, 사회단체 참가하는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9일 오전 프레스센터 언론연수원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공대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표자회의에 이어 11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대위에는 환경, 평화, 여성, 인권등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노동, 학생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제민주연대 변연식 대표,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범민련 이종린 의장,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 평화시민연대 강제숙 대표, 사무금융노련 김형탁 위원장, 실천승가회 효림 부의장, 미군기지공대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전농 정광훈 의장, 전빈련 김흥현 의장직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이수갑 의장, 전불련 법선 중앙위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지현만 사무국장, 21세기진보학생연합 및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표 등 50여 명의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표자 회의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공동대표의 사회로 9시 50분에 시작됐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경과 보고와 자통협 고영대 집행위원장의 이후 일정 보고 후 곧 바로 안건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참석한 대표들은 실무진이 제출한 발족선언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정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부시 대통령과 남북 정치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처장의 제안으로 공동집행위원장 1명을 충원하고 사업 계획에도 보다 역동적인 투쟁계획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날 공대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NMD, TMD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이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모처럼 평화정착의 기회를 맞은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낭독한 발족 선언문을 통해 ≪미국이 자신의 패권적 지배 유지와 거대 군수산업체의 이윤을 위해 NMD, TMD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군사 대결이 펼쳐지는가 하면,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각계 각층의 참여와 국내외 평화세력의 연대로 NMD, TMD를 저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12시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대위 상임대표인 홍근수 목사, 진관 스님 등이 미대사관을 방문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공대위는 이 서한에서 ≪부시정부가 미국 군사예산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은 허망한 꿈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남북한 정치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채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TMD관련 무기체계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대위는 향후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미 대사관과 국방부 등 항의방문, 토론회와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와 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공대위의 대표단을 미국에 직접 파견할 예정이며, 5월 4일부터 영국 리즈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8, 15를 겨냥해 대규모 국제토론회와 문화제, 대중적인 시위 등 강력한 국제연대를 통해 ≪국제평화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대위 조직구성≫

– 고문: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등

– 상임대표단: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정현(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법륜(좋은벗들 이사장),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종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상임의장),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이상 10명

– 대표자회의: 모든 참가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

– 집행위원회: 모든 참가단체의 집행책임자와 공대위 활동팀 책임자로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 고영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집행위원장), 박하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조영숙 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명

– 활동팀: 정책연구팀, 무기도입감시팀, 국제연대팀, 행동/문화담당팀, 조직담당팀, 홍보/언론담당팀

– 정책자문위원: 김민웅, 김승국, 이삼성, 이해영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참가단체≫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미구국노학연대선봉대, 범민련남측본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사무금융노련,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실천승가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 21세기진보학생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벗들,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41개 단체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NMD/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세계는 지금 부시정권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 강행으로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NMD와 TMD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만이 선제공격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패권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NMD, TMD에 맞서 핵무기 및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첨예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쟁과 진영간의 대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깡패국가≫라고 강변하며, 이들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구실 아래 NMD, TMD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권이 NMD, TMD체제 구축을 강행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우주의 군사적 선점을 통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려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체들에게 무한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세계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부시정권은 NMD, TMD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조작, 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나아가 부시정권은 남한정부에 NMD지지 및 TMD참여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냉전주의적 태도는 분단 이후 초유의 남북화해협력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과 대결을 야기하고 있다. NMD, TMD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분단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다시 강요하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첨예한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기아와 빈곤, 질병과 환경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세계를 또 다시 양분시켜 진영간의 대립을 불러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NMD와 TMD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평화 염원과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을 안고 지금부터 NMD, TMD저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시정권의 주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NMD, TMD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모든 비정부기구와 개별 인사들에게 이념과 정견, 지역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 4월 9일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제19차 국민행동의 날≫
미 대사관 반미연대집회 보고

4월 10일(화) 오후 2시, 미 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는 제19차 국민행동의 날—미 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미국의 NMD, TMD강행과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20% 인상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로 열렸습니다.

오두희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 날 집회에는 70 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선무방송을 통해 불법집회이므로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날 집회에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 익산유족회 이창근 부회장, 전 경기남부연합 의장 박우석 선생, 안희숙 비전향 장기수 선생, 박선영 열사 어머님,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과 일꾼들, 천정연 박순희 대표와 회원들, 양심수 후원회 한희숙 씨, 천주교장상연합회 양 비엔나 수녀, 국제민주연대 변연식 대표, 자통협 고영대 집행위원장 및 일꾼들, 서울 평통사와 전북 평통사 회원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들, 민주노동당 동지들, 그리고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중앙대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문정현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미국의 NMD, TMD추진은 악마적인 것이라며 악마적인 미국의 행위를 반드시 저지시키자고 하였습니다.

이어 김용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 양국은 91년, ≪주한미군주둔비분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소파와는 별도로 체결하여 지금까지 한국은 엄청난 금액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용한 위원장은 또 ≪3년 시한으로 되어있는 이 특별협정은 지난 98년에 네 번째로 연장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9일부터 이 협정에 관한 협상이 한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군은 분담금 20%(약 1300억원)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소파에서조차 공여지나 시설, 통행료를 제외하고는 미군이 주둔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미국은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파를 뛰어넘는, 초법적 강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제 분담금을 한 푼도 주지 말자. 그러기 위해 올해 우리 모두 특별협정 폐기투쟁에 나서자!≫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권 대표는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대한미국인가?≫하고 개탄한 후 ≪우리는 완전히 자주권을 상실당한 노예이다. 또한 IMF의 노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만 하면 저 종이호랑이와 같은 미국을 이기고 자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연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총련 대표로 중앙대 학우가 나와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미 대사관 진격 투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78명의 학우들이 한총련 출범식을 마치고 NMD, TMD를 저지하기 위해 미 대사관으로 진격하였다. 미국이 엄청난 고가의 무기를 팔아먹음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NMD를 강행하고 있기에 이를 응징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런데 한국 경찰들은 우리를 막아섰으며 무차별 연행하였다. 우리는 각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그 날로 모두 구출하였다≫라고 보고한 후, 앞으로 반미 투쟁에 학생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보름달 집회에 참가한 후 귀국한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이 나와 인사를 하고, ≪히로시마에 가보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름이 끼쳤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NMD와 같은 전쟁놀음거리들은 막아내야 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 사무처장이 미 대사관 앞 가로수 철책을 철거한 과정과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의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김 처장은 ≪미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밤에 몰래 철책을 철거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사실상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맥팔랜드 건 역시 국민 여론을 의식한 판사들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되돌린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과 함께 하는 반미투쟁을 벌임으로써 당면 반미 현안들을 해결해나가자≫고 연설하였습니다.

이 연설이 있은 후 박우석 선생이 항의서한 낭독을 하였으며 이 서한을 이창근 익산유족회 부회장과 김용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김판태 사무처장이 미 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표들이 돌아올 동안 오두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계속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악마적인 NMD 추진을 상징하는 피켓그림을 그려서 가져온 최병수 화백이 소개되었습니다. 최 화백은, ≪우리 민중들이 못살고 고통받는 이유가 분단 때문이고, 미국의 무기 구매 강요 등 침략적 행위 때문이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반대 1인시위를 담당하고 있는 문한별 씨는 ≪미국 사람은 미국 땅에서 살아야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살아야 한다. 여기는 우리 나라고, 우리 땅이다. 미국이 뭔데 우리 운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미국이 뭔데 이 땅에 들어와 주둔하고 있는가? 미국이 뭔데 무기를 사라고 강요하는가?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에 찬 연설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집회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의 결의발언,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대표의 반미 시 낭송 등이 있었습니다.

미 대사관 항의방문을 마친 대표단은 미 대사관측이 경비실 통해 서한을 전달하라고 했다면서 오만한 미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5월 15일로 예정되어있는 제20차 반미연대집회는 더 많은 대중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형식을 가미하여 치르자고 약속한 후 참가자 전원의 함성과 호루라기로 미 대사관에 분노와 항의를 표시함으로써 집회를 마쳤습니다.



록히드마틴사 앞 1인시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낮 12시,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미국 군산복합체 록히드마틴 한국지사(63빌딩 46층) 앞에서 ≪죽음의 무기상인 ≪록히드 마틴사≫는 이 땅을 떠나라!≫라는 주제로 록히드마틴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1인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날 1인시위 담당자인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하여 홍근수 자통협 상임의장,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 권언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형탁 사무금융노련 위원장과 문선곤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김승국 평통사 정책위원장, 그리고 전국불교운동연합의 진관 스님,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 좋은 벗들 회원과 자통협 본부 일꾼 등 20 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KBS, 통일뉴스, 자주민보,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10여 곳의 언론사 기자들이 나와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있게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민들은 기자회견장 주변 바닥에 깔린 기자회견을 알리는 플랭카드(≪죽음의 무기상인 ≪록히드 마틴사≫는 이 땅을 떠나라!≫)와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이 가져온 대자보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문정현 신부님은 1인시위를 알리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고영대 집행위원장에게 별도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록히드마틴 사 앞에서의 1인시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1인시위에 들어갔습니다. 63빌딩에 근무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문정현 신부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인사하고 지지의 말을 전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통일뉴스 기자는 46층에 있는 록히드마틴사에 가서 담당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지만 록히드마틴사는 매향리 폭격장과 관련되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 사무실은 단지 연락사무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에 이어 16일 전만규 매향리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직접 록히드마틴사를 상대로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록히드마틴사는 매향리 폭격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매향리 주민들과의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죽음의 무기상인 ≪록히드 마틴≫사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5월 9일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보내 그들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3년까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하겠다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을 밝힘으로써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바야흐로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첫 실험장이자 희생양으로 전락할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추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4대 군산복합체 중의 하나가 바로 록히드 마틴사이다. 록히드 마틴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 순위 1위와 연간 매출액 255억 달러(약 33조 원)를 자랑(?)하는 미국 최대의 군산복합체로서 수백 명의 로비스트와 수천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동원하여 세계 각국에 엄청난 무기를 팔고 있는 죽음의 상인이다.

뿐만 아니라 록히드 마틴사는 미 국방부와의 BMD(NMD와 TMD) 관련 계약 점유율이 10.8%로 보잉사와 TRW사에 이어 계약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NMD체제의 탄두추진체 및 TMD체제의 지상요격체제인 전역고고도(THAAD) 사업을 따내 이미 수십 억 달러의 사업비와 연구비를 챙겼으며, 앞으로도 미사일 생산과 해상요격 장비의 개발을 맡아 수백 억 달러의 이윤을 챙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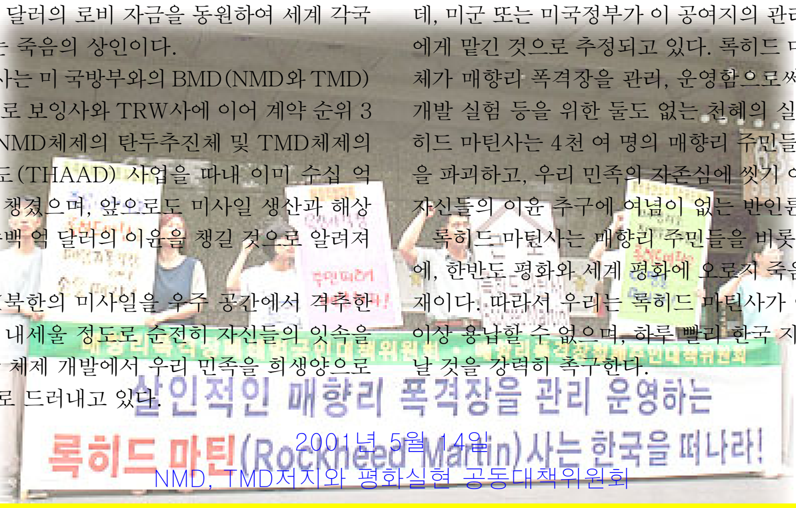
한편 록히드 마틴사는 ≪북한의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격추한다≫는 슬로건을 공공연히 내세울 정도로 순전히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체제 개발에서 우리 민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록히드 마틴사는 1987년 6월에 ≪록히드 마틴 코리아≫라는 한국 지사(여의도 63빌딩 46층 소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형 전투기(KF16),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 C130 수송기, P3C 대잠정찰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 수요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무려 70억 달러(약 10조 원)의무기를 팔아왔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사는 정, 관계의 주요 인사들을 검은 돈으로 매수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거나 사기를 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혈세를 빼내갔다.

더구나 록히드 마틴사는 매향리 국제 폭격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은 1968년 한국 정부가 매향리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징발하여 미군에게 공여한 땅인데, 미군 또는 미국정부가 이 공여지의 관리와 운영을 록히드 마틴사에게 맡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사와 같은 무기 생산업체가 매향리 폭격장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매향리 폭격장은 신무기 개발 실험 등을 위한 둘도 없는 천혜의 실습장인 셈이다. 이렇듯 록히드 마틴사는 4천 여 명의 매향리 주민들의 삶과 수천만 평의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씻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주면서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여념이 없는 반인륜적 회사다.

록히드 마틴사는 매향리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삶과 통일에,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오로지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우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록히드 마틴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하루 빨리 한국 지사를 해체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5월 14일

NMD, 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미국의 제4차 미사일 요격실험 규탄 기자회견

MD저지공대위

≪미국의 제4차 미사일 요격실험 규탄 기자회견≫이 7월 13일 11시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경이 미 대사관 전경이 바라다 보이는 장소를 사전에 점거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은 미 대사관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의 김달수 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소개에 이어 먼저 이종린 범남본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종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북을 고립, 말살시키기 위한 미국의 MD구축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감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미 행정부의 MD문서—부시행정부가 각국 미 대사관과 미군 부대에 보내는 명령서—≫라는 긴급 입수된 문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이 문건을 통해서 미국의 MD구축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예를 들어 PAC-Ⅲ)부터 배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또한 ≪이 문건에서는 ABM 조약이 허용하는 MD가 북한의 노동 미사일 요격은 가능하지만 대포동 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ABM 조약의 파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 공대위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MD구축을 저지하지 못하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평화애호세력과 힘을 모아 부시 정권과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 응답과 향후 공대위의 투쟁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종린, 홍근수, 진관 스님 등 공대위 대표들이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10여 명의 기자들과 함께 미대사관으로 향하였습니다. 미대사관에 도착하자 미대사관 정치과 정치담당 보좌관이라는 송명애씨가 항의서한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대위 대표들은 미 대사관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인이 나와서 항의서한을 전달받아야 한다는 것과 공대위 대표들을 대사관 안으로 모셔 정중히 수령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송명애씨는 앞으로는 대표들을 미 대사관 안으로 안내해 미국인 담당자가 항의서한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공대위 대표들은 송명애씨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석 : 이종린(범남본 의장),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 서경원(평통사 공동대표), 진관(불교인권위 의장), 박순희(천정연 대표), 김흥연(전빈련 의장),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박정숙(범남본), 김선분(범남본), 고영대(자통협 집행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조남수(한국노총 국제국 차장), 김달수(환경운동연합), 현희련(좋은벗들) 및 자통협 실무일꾼과 고려대 청년학생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01/07/13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북침전쟁도발책동

이동욱 / 구국전선 주체90년 6월 1일

지금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집권당국과 미국은 이북을 반대하는 전쟁준비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당국자들은 6.15공동선언의 막뒤에서 이북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부시의 강경대북정책에 편승하여 무모한 무력증강책동을 벌이고 있다.

군사당국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에도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2000년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있지도 않는 북의 ≪전력증강≫이니, ≪지속적인 침투활동추진≫이니, ≪군사적 위협의 증대≫이니 하면서 ≪주적≫개념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국은 무력증강을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 해보다 1조원이나 더 많은 15조 4천억원으로 정했다. 뒤이어 차세대 공격용 헬기, 차세대 전투기, 이스즈급구축함, 패트리어트 등 초현대식 무기구입을 새롭게 결정하고 앞으로 5년간 35조원(270억$)을 투자할 ≪중기국방계획≫까지 세워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운용되는 최신형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 ≪MK 41≫ 3기를 비롯한 5억$에 달하는 관련 부품을 미국에 주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 발사대를 새로 건조한 구축함에 설치해 해상과 공중을 장악하여 어리석게도 이북을 공격해보려 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가까운 몇해안에 2조1천억원의 자금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AH-X≫공격용 헬기 36대와 관련장비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미국과 군사당국은 각종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작전용 ≪MH-47E≫헬기 4대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 헬기는 완전무장한 특수병력 40여명을 태우며 공중급유가 가능하여 수천Km의 작전거리를 가진다고 한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호전적인 미국의 부시정권이 이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명하는 한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선언했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기구입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북의 미사일발사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북의 동해에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스즈함 2척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미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력을 부단히 증강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행정부가 작성중인 국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로 전략중심축을 옮기는 아시아중시전략으로 나오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첨단무기를 증강배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미당국자들은 무력증강책동 뿐아니라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부단히 벌여왔다.

주한미군은 지난 5월 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파주, 의정부, 동두천 일대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였다.

한국군 해군 3함대사령부는 5월14일부터 3일간 부산과 울산 근해에서 수많은 함정과 해군비행기, 공군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공격기동훈련 등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지난 4월 대규모의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을 비롯하여 북침전쟁연습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같은 한미당국의 무력증강책동과 북침전쟁연습은 6.15공동선언에 정면 위반되는 배신행위이며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에로 이끌어가는 반통일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현집권당국자들의 강화되고 있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어떻게하나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여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차단하고 호전적인 미국 부시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한국을 끌어들이며 동족인 이북을 고립, 압살시키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

미국과 현집권당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자주통일의 기운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역행하는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책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배격받는 부시정권의 힘의 외교정책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0년 5월 1일

미국대통령 부시는 취임하자마자 ≪힘의 외교≫정책을 밝히고 미국이 ≪힘과 권위≫를 가지고 국제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미국은 ≪힘의 외교≫정책을 세계 면전에서 시위하기 위해 지난 2월16일 또다시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공습을 개시함으로써 중동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저들의 강도적 본심을 드러냈다.

현시기 부시행정부가 ≪힘의 외교≫정책을 감행하는 데서 효과적으로 써먹자는 것이 ≪국가미사일방어≫계획이다.

부시행정부는 발족하자 바람으로 세계의 반대와 규탄을 받아 클린턴행정부시기에 그 수립을 연기하였던 ≪국가미사일방어≫계획을 강행추진함으로써 세계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열풍을 몰아오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출현으로 하여 오늘 지구촌에는 평화의 분위기 대신 새로운 냉전의 위험이 조성되고 긴장격화의 분위기가 짙어가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발족한 후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어떻게 하나 야심적인 ≪국가미사일방어≫계획수립을 강행하여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러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방성은 ≪국가미사일방어≫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불량배국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 ≪불량배국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행할 때마다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수법이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저들의 군사패권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구소련에 대한 ≪견제전략≫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핵전쟁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분쟁격화≫와 ≪지역안정≫, ≪인권≫과 ≪민주주의≫등 이런저런 구실을 내들고 무력증강과 강권행위를 계속해 왔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북의 ≪핵의혹≫과 ≪미사일위협≫을 걸고들었던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부시정권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첫째가는 대상지역은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지역은 대국들의 군사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해서 쉽사리 군비경쟁의 불길이 일어나고 정세가 첨예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차지하고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기도인 것이다.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부터 ≪잠재적 경쟁자≫로 선포했으며 러시아와의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수정, 파기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들은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강행하여 압도적인 군사전략적 우위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해군이 오는 2006년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 소식통은 지금 미해군이 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1단계 배치는 2006년, 2단계 배치는 2007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0년에 그것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일본, 한국에도 배치하려 하고 있다. 그 주되는 목적은 이북을 군사적으로 더욱 압박하고 임의의 순간에 방대한 미사일을 동원하여 선제타격하자는데 있다. 이에 관해 국가안보담당 대통령 부보좌관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는 이지스순양함에 탑재된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하여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순양함들을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적국들의 근처에 배비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었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파렴치한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또다시 한반도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 전주곡으로서 미국은 이북에 대해 ≪위험국가≫니, ≪테러지원국≫이니 뭐니 하는 등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으며 이른바 ≪강경대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무부별한 책동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후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부시행정부의 힘의 외교정책은 군비증강을 촉발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무모한 범죄행위로서 전세계의 배격과 규탄을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힘으로 이북을 압살하고 세계를 제패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부시행정부와 한반도

재미언론인 김민웅씨의 글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4월 30~5월 2일

미 씨아이브이의 **로 작성된 세계 정세 2015 제하의 정세보고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현재와 같은 추세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15년 뒤인 2015년이면 세계적인 빈부격화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현실이 국제적 불안정과 갈등을 증폭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발을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시켜 미국자신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 유럽연합의 응집력 강화 등 미국의 패권에 대항한 지역적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대미국 **블럭적 연대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현실은 실로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는데 이는 부시정권의 향후 외교정책의 수립과 그 추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이와 같은 갈등과 위기가 자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적 전략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외면한 채 그 결과에 대한 강경대응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적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치다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결국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전략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된 군사주의노선을 축으로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정권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즉 한반도 전체의 자주적인 행동반경을 압박하면서 대중국, 대 러시아 연합전선결성에 대한 견제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민족주의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조성, 증폭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적 자유주의, 군사노선을 정당화하려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축소를 겨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세계화전략의 안정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초극적 자본의 총공세를 지원하면서 특히 한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적으로는 대북적대정책을 통해서 국가미사일방어망체제를 구축, 동아시아지역의 패권적 맹주는 바로 미국임을 확실히 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적대적 민족분단의 종식, 한반도의 평화체제수립과 통일기반조성 등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심각한 부담과 장애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이러한 반동적 패권주의에 대한 민족내부의 전략적 응집력과 의지를 강력하게 발휘해야하는 시기임을 일깨우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예속화와 군사기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주적인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외세축출의 대응전략을 보다 치열하고 전폭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 말과 2001년 초엽 미국 증시는 경기침체를 우려한 투자위축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국경제 경제, 좀더 확실하게는 미국자본주의의체제의 전반적 경기순환과정이 하강세를 보이면서 선진국 경제협의체 오에프씨디 는 2001년도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3.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골드먼삭스의 경우 3개월전만 해도 금년도 성장률을 4%로 잡았으나 최근 2.5%로 수정하는 등 미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연방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가 잠시 증시부양에 도움을 준 듯 하나 이후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기본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는데는 역부족임을 보여주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지난 1월 1일, 2001년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사설을 통해 1920년대말 경기과열과 호황국면이 갑자기 무너져내려 대공황이 일어났던 상황과 1990년대의 호황국면이 비교된다면서 2001년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로 경기침체나 공황은 생산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경기과열이 절정을 이룬 순간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의 경기상승이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은 이미 지적되어온 바이다.

미국경제의 침체나 하강세의 반복적인 발생과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잉축적 즉 독점자본의 위치에 있는 대자본이 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일반서민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상승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기침체나 가난이 아니라 물질은 풍요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빈곤이 발생하는 기이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실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생산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경기가 가열되는데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일반소비자들의 능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 그만큼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것은 독점자본에게는 이른바 수익률하락으로 귀결된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부채까지 걸머쥐고 살기 때문에 소비를 유지하는데 부담이 생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효수요의 힘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본의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기침체는 독점자본화 된 대자본이 구조적으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자본주의의 투기적 성격까지 가미되어 증시 등 자본시장이 경기침체조짐에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자본의 급격한 회전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 자본순환회로가 경색되고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못해 금융시장 전체의 동요가 심화되면서 공황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현실은 이자율의 조정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일시적인 대처로 잠시 숨통을 트는 듯 하다. 그러나 실업자의 양산과 빈부격차의 심화 등이 계속되면 사회전반에 걸친 소득수준의 하락에 따른 시장기능의 악화로 인해 위기가 전면화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 할만한 일이다.

이런 시기에 미국자본주의는 자신의 경제위기를 외국에 전가하면서 타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자율조절이나 감세정책 등으로 단기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경기부양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쟁경제의 가동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공황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뉴딜정책보다는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쟁경제부양이었다는 경험을 볼 수 있다. 부시정권의 노선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변하려는 쪽으로 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이 전쟁경제의 확대가동을 한 위기극복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계속해서 스타워즈복원과 국가미사일방어망 재추진을 언급한 까닭도 이러한 구조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럼스펠드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팀은 부시에게 국가미사일방어망 체계를 늦어도 2005년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이라는 해는 럼스펠드가 이북의 미사일사정거리가 북아메리카대륙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결국 부시정권은 이북을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로 삼아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체제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지는 지난 1월초 사설에서 부시정권 국방팀의 이러한 구상과 권고안이 아직 충분한 기술적 정밀성이 확인되지 못한 국가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주요동맹국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럼스펠드를 중심으로 한 부시정권의 군사정책담당팀은 엔엠디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간 어렵게 돌파해 온 냉전체제의 수구적 보수회귀를 의미하며 그로써 민족내부의 화해와 단결, 그리고 협력체제의 **이 파괴될 수 있음을 뜻한다.

벌써부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강경수구세력들은 부시정권의 대북한정책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논평하지 말고 감정적으로도 자극하지 말고 부시정권과 조율하도록 하라고, 도대체 어느 언론인지 모를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족반역적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민족전체의 생존을 또다시 위기에 몰아 넣을 강대국의 군사주의에 분노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제동을 거는 일은 정당하다.

세계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자신들의 핵무기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것처럼 아넌보살하고 있는 미국의 반인륜적 패권주의야말로 깡패국가의 면모에 다름 아니다.

요한 생스비를 비롯해서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북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희생시키는 깡패국가중에 거두깡패국가라고 자신의 나라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막대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통해 대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명백한 목적은 은폐한 채 작은 나라를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면서 강경군사노선을 지향하려는 부시정권의 대한반도정책은 그 본질적 정체가 폭로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시정권의 정책과 같이 호흡하면서 대북적대정책에 혈안이 되고 있는 국내 강경수구세력들의 반민족적인 행위 또한 청산되어야 한다. 외세를 업고 민족의 생명을 압박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민족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거머쥐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

안기부선거자금 유용사건도 따지고 보면 냉전체제유지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청산, 냉전국가와 체제의 해체라는 막중한 과제와 연관되어야 의미가 있다.

적대적 민족분단을 행해온 냉전체제가 불러온 ***는 민족경제에 대한 가치관의 부재로 결국 경제파국의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 민족의 역량을 이토록 약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에 협력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층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국정치의 모순과 혼란은 바로 이러한 세력들의 범죄와 이들의 세력집결을 위한 것임을 주시하고 이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의 목표로 삼아 냉전체제의 청산을 통한 새로운 민족자주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남과 북의 공동번영과 평화, 그리고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전략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드러난 지배주의야망

로동신문 글

(평양 3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또다시 드러난 지배주의야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전문 다음과 같다.

새로 출현한 미국의 부쉬정부가 세계제패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힘의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침략무력을 전례없이 들이밀고 있는것은 그러한 힘의 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제는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의 사세보기지에 소해분견대사령부를 신설하였다. 이 기지에는 분쟁지역에 긴급투입할 미군무력을 수송하는 강습양륙함들과 소해함들이 배비되여 있다. 이번에 소해분견대사령부를 신설한것은 조선반도≪유사시대응≫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미제는 괌도에 래년부터 3척의 공격용잠수함을 배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이러한 조치가 ≪또하나의 중대한 무력배비≫로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미군이 ≪위기발생시 긴급대응하고 교전하는데서 우세를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와 일본에서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지금 미국본토 등에서 새로운 무력이 조선반도주변에로 투입되고 있다. 최근 미제7함대기함 ≪블루릿지≫호가 일본 도꾜항에 기여 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요꼬스까항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의 함재기들이 야간리착륙훈련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더욱더 부산스러워 지는 미제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들은 우리를 자극하고 고도의 경계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산물로서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제압하기 위한 위험한 전쟁도발책동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기둥은 힘이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지난 2월 10일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무력증강을 다그칠것이라고 하면서 ≪평화는 무력으로 담보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부대통령 체이니는 새 공화당정부는 ≪레간시기와 같은 자랑스러운 시대≫를 펼치겠다고 떠벌이였다. 미국의 현 집권자들은 선임자들보다도 힘의 정책에 대해 더 요란하게 웨치면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힘의 우세를 이룩하고 군사적지배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병력과 작전장비들의 전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부쉬정부는 세계의 일련의 지역들에서 부분적인 무력축감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만은 무력을 계속 증강하려 하고 있다. 그 목적은 힘의 방법으로 이 지역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려는데 있다.

미국은 또한 군사쁠럭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해 유럽에서와 같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통제와 지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지배층은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화를 강화하고 거기에 다른 나라들을 망라시켜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제의 전략에서 기본은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는것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남조선을 틀어 쥐고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을 일으키는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커다란 군사경제적잠재력과 풍부한 침략전쟁경험을 가지고 복수주의야망에 불 타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대륙과 직접 잇닿아 있는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의 발판인 남조선이 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제1선지역으로 선포하고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틀어 쥐고 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제는 바로 남조선을 전방기지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제압하고 나아가서 주변대국들을 견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선이며 무력의 증강과 전진배비는 그 군사적공간으로 되고 있다.

미제가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 남조선을 그토록 중시하는것은 조선반도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날카로운 대결의 마당이며 이 대결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용감하게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세계인민들의 경탄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공화국의 권위는 높아 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달가와 하지 않는 미제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야망을 품고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할 무모한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미제가 무분별하게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결코 살아 남을 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강철의 의지와 뛰여 난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의 무력침공도 일격에 타격할수 있는 강위력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신념이 강하며 일심단결되여 있다. 만약 미제가 감히 덤벼 든다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모두가 총폭탄이 되여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쓸어 버릴것이다.

반미투쟁은 인류공동의 과제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4월 22, 25, 26일

임현아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임현아 : 새로운 21세기의 진군길에 나선 인류는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약탈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에서 살려는 공통된 지향과 염원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새 세기에 출발점에 선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 시대의 절박한 요청에 도전하면서 여전히 힘의 정책에 기반한 일국세계정책에 혈안이 된 세계적인 반동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미투쟁은 인류공동의 과제라는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거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네, 새 세기를 맞이해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염원을 실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자주성 실현을 위한 인류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면서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는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특히 냉전종식 후 이른바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횡과 독단을 일삼아 왔고 오늘날에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온갖 횡포하고 야수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이나 국제법, 세계적인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치외법권적 행위를 마구 감행하고 있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횡포무도한 군사테러와 정치,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초까지에만도 세계도처에서 150여차의 국소 및 지역전쟁, 군사적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했구요. 특히 1990~1997년 기간에만도 45개의 이른바 소규모 사건들에 대처한 미군무력전개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90년대엔 지구촌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115차의 이른바 경제군수원조금지, 무역제재 등의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그중 104차는 2차 대전 후 것이고 냉전종식 후에만도 무려 61차에 걸쳐 제재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임현아 : 참으로 예기를 듣고 보니 미제야말로 현 시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전쟁광신자고, 인류공동의 주적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21세기가 들어선 오늘까지지도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힘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인류에게 재난을 들씌우려고 필사발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세기에 이르러 반미투 쟁은 인류공동의 과제로 더욱 부상되고 있다고 보겠는데 어떠세요.

김현규 :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엔 미국에선 부시행정부가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시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부터 미국의 힘과 권위의 과시를 운운하면서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려는 입장과 태도를 공공연히 역설했구요. 지난 2월 2차에 걸쳐서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적인 야수적 공습만행을 감행한데서 보는 것처럼 무모한 힘의 정책을 행동에 직접 옮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시행정부는 극히 위험천만한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책동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험적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구축책동을 이북을 위시한 이른바 불량배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지만 세계가 공인하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대국들을 견제하고 세계적인 군사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미국주도의 일국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구경만 하고 있진 않을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



제 구축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대처할 태세를 공식 천명하고 있구요, 미국의 동맹국들인 캐나다와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나라들도 위구심과 반대를 명백히 표명하고 있죠.

임현아 : 세인들로부터 매파정부, 냉전정부로 규탄 받고 있는 부시미행정부의 이 같은 무모한 행위로 해서 오늘날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해졌고 세계에는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의 위험이 짙어지고 있잖아요.

김현규 : 네, 그렇죠. 새 세기를 맞이해 조성된 엄중한 국제정세와 현실은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실현할 수 없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기의 반미투쟁은 진보적 인류의 공통된 임무로 가장 선결적인 과제로 됩니다. 한마디로 반미투쟁은 현시대 세계자주화의 기본 전략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현아 : 그래서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보지 않고 그에 환상을 가지면서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의 참화를 빚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실까요.

김현규 : 네, 그건 지난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나라들이 망국과 파멸의 길을 걸었구요, 지금까지도 비참한 처지에 있는 현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결과 자본주의가 복귀되어 망국의 비운을 통감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일부나라들이 미국의 유혹에 놀아나다가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동족싸움과 민족분쟁으로 유혈참극까지 빚어내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에 대한 환상과 타협은 곧 망국이고 죽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임현아 : 네, 그래요 제국주의 특히 미국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변할 수 없고 또 결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견지에서도 반미투쟁은 인류공동의 과제로 나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규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타민족들이나 민중을 억압학대하고 약탈할겁니다. 현재 제국주의의 괴수인 미국은 세계도처에 침략과 간섭의 마수를 뻗치고 제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 인류는 반미투쟁을 끝까지 견결하게 벌여야 합니다.

임현아 : 네, 그렇죠.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반미투쟁을 공동과제로 삼고 굳게 단결해 싸워야 하는 건데요. 이와 함께 현시기 반미투쟁의 세계적 판도에서 친미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김현규 :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데서 세계 여러나라들의 반동세력을 끌어드리는 것은 미국의 써온 상투적인 수법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역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반동세력을 침략의 길잡이,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도 일본반동들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구요, 이스라엘을 부추겨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들과 추종자들을 반대해 투쟁하는 건 반미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임현아 : 미국은 최근 수년간 강경과 묘사의 양면전술을 쓰고 있는데 따라서 진보적인 인류는 그런 문제에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현규 : 네, 옳습니다.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지향이 날로 높아지고 세계적 판도에서 반미투쟁의 열기가 고양되자 미국은 양면술책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것은 최근 수년간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패퇴몰락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날로 어려운 처지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죄다 발동해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날강도적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 세기와 더불어 자주화의 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여전히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기어코 미국주도하에 일극세계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발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발광은 단발마적이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임현아 : 네, 그렇죠. 진보적 인류는 공동의 적인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중단없이 줄기차게 벌여야 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각계애국민중도 진보적 인류와 굳게 연대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반미투쟁현황과 과제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5월 4~5일

이 철 : 안녕하세요. 부시미행정부의 무분별한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점차 격화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계층민중들은 미국의 반북강경압살책동을 규탄배격하면서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각계민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의 현황에 대해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일 : 예, 그러죠 , 최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민중은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 반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어요 최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전국연합, ***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체제, 전역미사일방위체제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범국민대회를 가졌는데요. 대회에서 그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이 북의 이른바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면서 대북적대시정책, 강경고립압살 책동을 표방해 대화로 나가는 북미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고 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을 명목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부시정권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미시위를 벌렸어요.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을 비롯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와 성명발표, 반미집회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 철 :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투쟁들은 우리민중의 확고한 반미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최근에 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점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오 일 : 네, 지금 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투쟁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강경노선, 대북강경압살정책을 반대하는 데로 지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에세 일어나는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달가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을 자극하고 한반도전역에 대한 불의의 침략을 감행해 보려고 매우 강경하게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거죠. 각계민중은 미국의 이 같은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부시미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책동에 반대해서 투쟁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철 : 그것은 바로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중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리고 말이에요 부시미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하는 투쟁 역시 지난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그래요. 부시미행정부가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요. 이건 세계적 판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미국의 전력증강책동으로 인해 초래될 극히 위험한 사태를 반대해서 우리 민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커다란 의혹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 당국자들 속에서까지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방위체제 수립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은 매우 주목되는 투쟁이라고 봅니다.

이 철 :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을 보면 투쟁이 조직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한 계단 발전했다는 점도 응당 지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 일 :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이 부시미행정부출범 이후 더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투쟁이 조직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그리고 각계 연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반미투쟁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시민들, 피해지역내 주민들을 비롯해서 각계민중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적극 합세해서 연대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철 : 그럼면 현 시기 반미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일 : 예, 무엇보다도 부시 미행정부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만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반북강경압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못한다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통해 모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깨지고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때문에 각계층민중은 부시미행정부의 대북적대시 강경노선, 반북강경압살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하죠.

이 철 :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는데요.

오 일 : 오늘 조성된 정세는 미국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장애물이고 우리민중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계민중은 주한미군기지와 함께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 철 : 반미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투쟁을 대중화하는 것, 다시말해서 각계각층 민중이 대중적으로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이잖아요. 그럴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오 일 : 광범위한 대중이 반미투쟁에 나서자면 그것은 대미관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국의 벗도, 원조자도 아니며 통일의 방해자, 민족의 원수라는 인식을 바로 갖는 것입니다. 반미투쟁을 대중화하는데서 중요한 건 다음으로 양민학살 진상규명문제, 소파협정폐지 문제와 같은 세계여론의 초점이 되고있는 문제들을 쟁점화 해서 광범한 민중이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이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반미투쟁단체들이 조직되어서 벌리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그 아래 대중을 단합시켜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 : 네, 옳은 말씀입니다. 각계층민중은 반미자주화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단합해서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배격하자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7월 4~6일



얼마전 우리 겨레는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면서요,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밝힌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온 겨레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 통일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해 6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우리 민중은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너도 나도 바쁜 걸음을 했습니다. 자주통일선언인 공동선언이행에 통일시간표를 앞당기는 길이 있다는 걸 누구나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 호전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해서 공동선언이행은 첫걸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과 주한미군의 군사기술장비의 증강,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반북압살책동과 북침전쟁책동 등은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차넘치던 이땅에 냉전의 한파를 또다시 몰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좋게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고의적인 책동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은 이땅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간섭책동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이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없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거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에 우리 민중의 살길이 있다는 걸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세기에 들어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넓은 길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중이 미국의 군화짝에 짓밟히고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건 더없이 치욕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해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언제까지나 계속 유린당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 민중은 미국의 이땅에 대한 강점정책을 종식시키고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현시기 반미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북강경책동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의 출현과 함께 계속 도수가 높아지는 대북 적대시정책은 한반도에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호전세력들의 대북강경정책은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운동을 차단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데 그 범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무모한 긴장격화책동이 방치될 때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맞게 될 건 의심할 바 없습니다. 때문에 청년 학생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해 나서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해치려는 미국 침략세력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범죄적 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겁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움직임을 파탄시킬 것을 노린 미국의 반북강경정책을 저지시키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땅을 반미열풍지대로 만들고 온 민중을 반미투쟁에로 분기시켜 미국의 무모하고도 파렴치한 반통일책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할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불굴의 의지와 기개, 과감한 투쟁정신으로 미국의 반북강경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에 나설때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5호)

부시정부는 여전히 대북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조미합의문들이 휴지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조미관계는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

부시정부가 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시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다. 부시정부는 레이건의 별세계전쟁계획을 부활시키며 대결과 군비경쟁의 신냉전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산군복합체의 배후조종과 세계패권야욕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 확증하다시피 민중의 희생 위에 추진되는 반동적인 정책의 후과는 공황과 파국일 수밖에 없다. 자주성의 시대에 역행하는 패권정책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일 뿐이다. 이미 미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미국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조미합의문대로 2003년까지 조선에 경수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선은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화적 핵동력개발을 중단한 결과 수백억달러의 에너지손실, 경제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경수로건설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다. 200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경수로건설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합의문이 파기되면 그 세계적 범위의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쟁과 파멸이냐 아니면 협력과 보상이냐 하는 선임정권의 딜레마에 또다시 봉착하고 있다. 조미전쟁의 파멸적 결과는 미국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유일한 출로는 미국이 조선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접수하며 해당한 경제손실을 보상하는 길뿐이다. 미국은 조미합의문에 밝혀진 대로 대북봉쇄조치를 해제하고 조미외교를 수립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를 규정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적대시정책으로 허세를 부리며 시간을 늦출수록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다.

현재 부시정부는 ≪대북정책조정≫을 위한 시간을 달라며 조선에 애원하는 한편 이남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기는 오그랑수를 쓰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며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민족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역사에서 모처럼 마련된 통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이회창패당 따위의 반통일책동은 산산히 격파분쇄될 것이다.

부시정부는 파국과 고립을 재촉하는 신냉전전략, 미사일방어체계정책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조미합의문을 성근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통일분자들을 충동질하는 온갖 불순한 책동들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부시정부는 현명히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8일
서울

